통분 91-12-74

1990년도 기준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1991

통 일 원

目　　次

Ⅰ. 南北韓 經濟比較의 意義와 接近方法 ····· 5

1. 南北韓 經濟比較의 意義 ····· 5
2. 比較를 위한 接近方法 ····· 7

Ⅱ. 南北韓 經濟의 本質 ····· 11

1. 經濟體制의 比較 ····· 11
   가. 私的 所有制度와 社會的 所有制度 ····· 11
   나. 市場經濟와 計劃經濟 ····· 13
   다. 經濟的 自由와 經濟的 統制 ····· 15
   라. 開放經濟와 閉鎖經濟 ····· 16
2.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比較 ····· 18

Ⅲ. 南北韓 經濟開發의 成果 ····· 21

1. 分斷 直後의 產業 與件 ····· 21
2. 韓國戰爭과 戰後 產業 復舊 ····· 23
3. 經濟的 成果 ····· 26
   가. 經濟開發 計劃과 그 成果 ····· 26

나. 産業 部門間의 構造 ····· 33
다. 南北韓의 GNP增加 推移 ····· 36

Ⅳ. 主要 部門別 現況 ····· 39

1. 總量 部門 ····· 39
가. 人口 및 領土 ····· 39
나. 年度中 經濟成長 ····· 41

2. 財 政 ····· 45
가. 歲 出 ····· 46
나. 歲 入 ····· 51

3. 農水産業 ····· 54
가. 南北韓 農業部門의 主要 特徵 ····· 54
나. 農業生産의 基盤 ····· 58
다. 食糧作物의 生産 ····· 64
라. 畜産業 實態 ····· 66
마. 水産業 實態 ····· 67

4. 鑛 工 業 ····· 69
가. 鑛工業 資源 및 에너지 ····· 69
나. 重化學 工業 ····· 76
1) 鐵鋼 및 非鐵金屬 工業 ····· 76

2) 機械工業 ····· 80
3) 化學工業 및 建材工業 ····· 83
다. 輕工業 部門 및 消費財 工業 ····· 86
라. 技術 水準 ····· 90

5. 輸送·通信 ····· 93

6. 對外 去來 ····· 99
가. 貿易 規模 ····· 99
나. 貿易 構造 ····· 103

V. 要約과 結論 ····· 107

Ⅰ. 南北韓 經濟比較의 意義와 接近方法

1. 南北韓 經濟比較의 意義

8.15解放과 더불어 韓半島의 南과 北은 각기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개의 經濟圈으로 분리됨으로써 막대한 민족적 역량의 비생산적 소모를 감내해왔다. 특히 北韓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종주국인 소련에서도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체제로 결론짓고 포기해버린 社會主義 體制에 미련을 둔채 「우리식대로의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어서 민족사의 발전을 停滯시키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北韓經濟의 실상은 급변하는 國際與件 變化에 適應하지 못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北韓問題 專門家들의 공통적인 견해로 되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經濟力量도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南北韓이 『하나의』 經濟圈으로 묶어질 경우,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경제로 비약·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分斷狀況에 놓여 있는 남북한의 經濟現實을 비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相對的인 比較를 통해 韓國經濟와 北韓經濟의 윤곽을 더

욱 확실하게 파악하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南北韓 經濟 전반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한의 經濟實態를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무엇이', '어떻게', '왜' 다른가를 규명할 수 있으며 『分斷經濟』의 綜合的인 位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南北韓 經濟 比較는 분단의 해소 내지 平和的 統一의 당위성을 經濟的 側面에서 시사하여 준다. 비교를 통해 나타난 각각의 開發成果 및 經濟力量의 격차는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그 격차 이상의 經濟的 損失이 분단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經濟圈으로 통합되는 경우 低水準에 있는 어느 일방의 경제가 호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分斷費用의 지출에 따른 經濟的 損失(Economic Opportunity Loss)이 제거되고 남북한 지역간 상호 보완적 요인의 상승작용으로 韓國經濟는 『規模의 經濟』(Increasing Returns to Scale)의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째로, 平和的 統一의 과정에서 남북한의 經濟交流 및 協力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 가는 基本方向을 제시할 수 있다. 즉 南北韓의 經濟 現實에 대한 비교는 어느 일방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단에 따른 긴장의 해소와 평화적 통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接近方法으로서 生産的 役割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南北韓 經濟比較는 통일이후 선택되어야 할 이상적인

經濟體制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南北韓間 經濟力量의 차이는 經濟體制의 相異에서 비롯된 결과이거니와,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의 自由와 福祉增進을 보장할 수 있는 實利的인 통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南北韓 經濟力量의 비교·평가는 상이한 經濟體制 가운데 바람직한 하나의 經濟體制를 선택하고 민족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比較를 위한 接近方法

南北韓의 經濟 實相을 比較·評價하는 것은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남북한이 상호 이질적인 經濟體制를 형성·유지하고 있거니와, 특히 북한은 구체적이고 신뢰성있는 각종 經濟關聯 資料의 발표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南北韓 經濟 比較에서의 제약 요인이나 유의하여야 할 몇가지 문제점들을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비교하는데 있어 부딪치는 가장 커다란 제약은 북한측 資料의 貧困 問題이다.

閉鎖體制를 유지해 오고 있는 북한에서는 1965년부터 經濟統計를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김일성의 新年辭, 豫算·決算 報告書, 經濟計劃 報告書 및 各種 行事 등의 보고서에 발표되는 단편적인 일부 자료가 북한이 발표하는 통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 대부분의 자료가 통계가 발표된 바 없는 特定年度를 기준으로 하여 指·倍數로 표현되기 일쑤이므로 經濟統計를 時系列化하기 어려움은 물론 이러한 자료들이 실적의 과장 선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北韓 經濟를 분석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經濟體制의 相異에서 야기되는 해석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經濟秩序를 이해하고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비교함에 있어서 民間經濟活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경제체제를 단순히 資本主義的 視角만으로 분석한다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얼핏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이와 같은 오류는 자주 발견되고 있다.

북한은 私有財産 및 經濟的 自由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재산의 소유형태는 물론 生産·供給·流通體系, 소비 패턴 등 經濟構造가 資本主義 國家들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째, 北韓에서 사용하는 經濟用語의 槪念, 經濟 統計指標의 單位 등이 한국의 市場經濟體制의 그것과 다르거나 분명하지 않는 데서 오는 제약이다.

이를테면 한 나라의 巨視的인 經濟的 成果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한국과 같은 資本主義 經濟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가

생산활동을 통해 새로이 추가한 財貨 및 用役의 附加價値 合計를 나타내는 國民總生産(GNP : Gross National Produc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을 포함한 社會主義 經濟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社會總生産(GSP : Gross Social Product)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社會總生産이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社會主義 經濟에서 창출된 財貨의 單純 總生産高를 말하며, 여기에는 서어비스(용역)부문은 비생산적이라고 하여 계산되지 않고 있으나, 最終財의 생산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중간생산물이 합산되고 있어서 實物生産의 價値가 이중으로 계산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國民所得의 경우도 한국의 그것과 用語는 동일하지만 개념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이 經濟指標의 單位를 불분명하게 발표하는 점도 比較分析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織物生産量을 표시할 때 단순하게 길이로만 표시하고 폭은 밝히지 않는다든가, 農産物을 곡종별 생산량은 밝히지 않은 채 國際的으로 通用이 되지 않고 있는 粗穀 개념인 알곡으로 生産總量만을 발표한다든가, 또는 화학비료 생산량을 成分 含量基準이 아닌 物量基準으로 발표하는 등이 바로 그러한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南北韓 經濟比較 硏究上의 制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比較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주요 經濟指標들을 보다 정확히 推定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反復的인 一聯

의 北韓經濟指標의 推定 및 檢證을 통하여 推定値의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상의 正確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추정되는 북한의 각종 주요 經濟指標들은 資本主義的 槪念과 單位로 동일하게 변환시킴으로써 韓國과 比較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역량을 比較·評價함에 있어서 먼저 양쪽 經濟體制의 本質的 差異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분단이후 서로가 실현한 經濟開發의 成果(Performance)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경제를 動態的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經濟現況에 대한 比較는 개개 統計數値의 나열을 통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經濟體制, 經濟構造, 經濟的 安定度 및 效率性 등을 감안한 構造的·機能的 認識을 통해 종합적으로 究明하도록 노력하였다.

Ⅱ. 南北韓 經濟의 本質

1. 經濟體制의 比較

經濟體制의 槪念은 분석자에 따라 多樣하게 정의되지만, 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經濟 主體의 經濟 行動이나 經濟 成果에 상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내지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經濟體制를 어떤 이념을 지향해서 사회의 각 구성체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경제에 있어서의 규범적인 기본틀이라고 정의하고 南北韓의 經濟體制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가. 私的 所有制度와 社會的 所有制度

資本主義 經濟體制는 私有財産 制度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산수단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사유재산 제도를 否定하는 바탕위에서 生産手段의 소유를 전적으로 國有化 내지 社會化하고 있다.

自由資本主義를 基本이념으로 하는 韓國은 대부분의 財産과 生産手段이 사적 소유로 되어 있다. 단지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道路, 港灣, 電力 등 주요 社會間接資本과 國·公有林

을 포함한 國有 土地, 江·河川, 湖水 및 海域·水域 등 國家 全體의 利益을 위한 일부 시설과 自然資源만이 國有 또는 公有財産으로 管理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北韓은 다른 어느 共産圈 國家보다도 私有의 範圍가 制限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은 분단 이후부터 토지를 포함한 모든 생산수단과 中小 商工業을 『利用 → 制限 → 改造』라는 3段階의 政策을 거침으로써 1958년에 완전히 國·公有化하였다. 그 결과 현재 북한에서는 개인의 賃金과 分配 몫으로 구득할 수 있는 基礎 生必品을 除外한 모든 生産物이나 生産手段이 國·公有化되어 있다.

이러한 所有制度上의 本質的인 차이는 남북한 국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목적, 경제의식, 경제기구의 조직과 기능 등의 차이를 必然的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한국 국민의 경제활동이 個人所得의 增大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북한주민의 경제활동의 기초는 勞動黨이나 김일성에 대한 충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個人의 經濟意識도 한국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데 반해 북한에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南北韓의 經濟成長과 發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經濟機構의 組織과 機能도 한국은 市場을 중심으로 하여 個人, 企業, 政府 등으로 多元化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北韓은 中央當局을 중심으로 하여

一元化되어 있다.

나. 市場經濟와 計劃經濟

資源의 配分 및 經濟活動에 있어서 한국이 市場機構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北韓은 中央集權的인 計劃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韓國經濟에 있어서 勞動, 資本, 技術 등 각 生産要所나 각종 생산물의 需給과 價格이 시장을 통하여 自律的으로 결정되는 自動調節機能을 갖고 있는데 비해 北韓經濟는 中央 當局에서 一方的으로 결정한 계획에 따라 인위적으로 管理·運用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中央計劃에 따른 巨視的인 需給物量의 조정은 競爭的 市場價格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中央計劃當局의 人爲的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資源配分面에서 最適均衡을 이룩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需給不均衡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단순한 조정작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市場經濟下의 조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價格은 북한에서도 존재하지만 이것은 경쟁적 시장가격이 아니라 計劃價格이며 따라서 북한에서의 가격은 계획 수행을 위한 統制變數로서 기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만 북한에서는 가격 변화에 대하

여 둔감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經濟構造 및 기능은 必然的으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계획 및 관리업무의 과다로 計劃·管理機構의 肥大化를 초래하였고 利潤動機(Material Incentive)가 결여됨에 따라 家計·企業 등 經濟單位의 創意와 能率을 低下시키고 있다. 또한 計劃目標의 過多策定으로 인하여 계획부서와 생산단위간에 마찰을 초래, 경제적 효율이 低下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현상이다.

최근에 와서 북한이 1930년대 소련이 채택하였던 원시적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의 고수에 한계를 느끼고 뒤늦게 企業所나 공장의 『獨立採算制』 강화와 地方 豫算制度의 채택, 價格의 기능과 역할 강조 등 경제 관리면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체제적 특징을 전술한 所有制度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市場經濟는 私的 經濟活動을 保障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소득은 자동적으로 해당 經濟主體의 所有가 되며, 投資이건 消費이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計劃經濟下에서는 經濟活動의 目的이 국가 자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우선을 두고 있는 데다가 모든 경제활동도 集權化된 中央計劃當局에 의하여 유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生産物이나 收入은 국가에 歸屬되는 것이다.

다. 經濟的 自由와 經濟的 統制

韓國經濟는 개개의 經濟 主體에 대하여 자유와 평등의 秩序속에서 經濟活動이 가격 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와 法과 秩序를 攪亂시키는 방만한 경제행위를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모든 經濟行爲에 대한 經濟的 自由(Economic Freedom)가 保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분단 이후 지속적인 高度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경제적 자유의 보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란 경제활동에 있어서 創意와 能率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장치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경제는 政權當局을 軸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움직여지는 統制經濟이다.

북한은 經濟主體가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행위가 政權當局에 의해 전권적으로 이루어짐은 물론 이거니와 일부 個人的 所有로 되어 있는 재산조차도 정권당국의 의도적인 制限政策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소유권의 행사 또는 經濟行爲가 거의 곤란한 실정이다.

기껏해야 상점에 가서 生必品을 구득하는 것이 북한에서의 私的 經濟行爲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나마도 供給量의 절대 부족으로 일반 주민들이 그 기회를 얻기란 좀처럼 힘들다. 북한경제에 있어서 직업선택이나 소비자 선호, 생산과 투자활동 등

에 있어서의 자유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요컨대 북한의 中央集權的 統制經濟體制는 어느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중앙당국이 목적을 앞세워 私的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中央計劃當局을 제외한 모든 부분 경제단위들은 他律的이며 受動的인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다.

라. 開放經濟와 閉鎖經濟

남북한의 경제체제는 經濟開發 戰略面에서도 서로 그 內容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개방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北韓은 『1國家社會主義』라는 스탈린 方式에 따라 폐쇄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남북한의 經濟的 差異를 비교 분석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경제개발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 공히 인구에 비해 영토가 협소하고 資源 및 蓄積 資本이 不足하다는 공통된 여건하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1961년 韓國의 1人當 國民所得은 82달러에 불과하였다. 산업구조면에서도 農林水產業이 國民總生產의 38.7%를 차지하여 工業化 水準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으며 공업화를 위해 필요한 自然資源도 절대 부족한 어려운 여건이었다. 한국은 所得水準이 낮으니 소비의 絶對水準이 낮을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國內需要가

적어 산업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넉시(R. Nurkse)가 지적한 대로 貧困하니까 더욱 빈곤하여지는 『貧困의 악순환』이 그대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後進經濟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한국이 채택한 전략이 바로 對外指向的 經濟開發, 즉 開放經濟를 確立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양질의 인력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生産性을 向上시키고 세계시장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分野를 開拓하는 등 經濟의 開放化를 적극적으로 推進하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의 원활한 확보와 한국의 國際的 地位向上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지금까지 경제의 高度成長과 發展을 이룩하는데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반하여 北韓은 원시적 형태의 閉鎖體制인 『아우타르키』(Autarky) 經濟體制를 固守하여 왔는데, 이는 1966년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自力更生의 原則下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일관된 노선』이라고 선언, 그들의 孤立主義的 閉鎖體制를 강조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아우타르키 체제는 각국이 종합적인 産業基盤을 보장해야 한다는 스탈린식의 『1國家社會主義』를 敎條的으로 모방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1960년대 중반이후 共産圈으로부터의 원조가 격감됨에 따라 이와 같은 고립적 폐쇄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그러나 産業化의 조건이 열악한 북한이 對內指向的 成長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閉鎖體制의 固守로 인한 投資財源의 부족과 技術落後는 持續的인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北韓은 이와 같은 經濟成長의 한계를 극복하고 經濟沈滯를 타개하기 위해 '70년대의 6개년계획 기간중에 대외 經濟協力을 시도, 外資 및 플랜트 導入을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蘇聯 및 中國과의 빈번한 接觸, 對美·日 접근 및 合營法 發表 등 보다 적극적인 開放姿勢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對外 開放化의 모색은 투자여건의 미비와 輸出不振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北韓經濟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閉鎖的 自立經濟體制의 고수로 인하여 經濟 運用能力의 未熟, 산업 구조상의 왜곡등 개방체제에 대한 적응능력이 결여된 데에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2.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比較

한국은 經濟政策의 基本目標를 國民福祉의 향상과 自立經濟의 달성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政策基調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安定基調위에서의 適正成長 追求라는 기본적 입

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에 걸친 석유파동, 1980년의 일시적인 사회불안과 흉작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함으로써 '70년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7~8%의 高度成長을 持續하고 있다.

둘째, 輕工業 發展을 기반으로 한 重化學工業의 建設促進政策을 강력히 그리고 꾸준히 推進함으로써 工業基盤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업화 정책은 工業構造의 改善 및 國際競爭力 強化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세째,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對外指向的 工業化를 追求함이다. 이는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면서 韓國經濟의 發展을 成功的으로 主導하여 왔다.

네째, 國民福祉의 增進과 經濟的 衡平을 提高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에 힘입어 福祉政策의 추진기반이 공고화됨에 따라 所得의 再分配를 통한 國民福利施策의 폭을 착실히 넓혀 나가고 있다.

한편 북한의 經濟政策基調는 무력에 의한 對南赤化 實現의 基盤이 되는 군사력 증강을 꾸준히 지속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政策을 推進하여 왔다.

첫째, 북한은 이른바 『自力更生』의 원칙을 앞세워 自立經濟를 構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自立이란 자기완결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자원이 절대부족한 조건하에서 自力更生 原則의 고수는 국가간 자원과 상품의 교류에서 오는 國際分業의 이익을 얻

지 못함은 물론, 對內的으로는 技術의 落後, 성장의 鈍化를 가져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들어 뒤늦게나마 輸出의 劃期的 增大를 당면 과업으로 설정하는 등 國際交流 및 協力을 서두르고 있으나 商品競爭力의 향상, 國際的으로 실추된 信用의 회복 등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둘째, 重工業 優先 政策의 계속적인 追求이다. 그 결과 북한은 자원의 낭비와 産業間의 不均衡이 심화되었으며 나아가서는 工場·企業所의 조업율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째, 軍事와 經濟의 竝進策을 들 수 있다. 북한은 1962년 12월 勞動黨 第4期第5次 全員會議에서 4大 軍事路線을 採擇하였으며, '60년대 중반기에 공산권의 理念紛爭과 中·蘇紛爭이 격화됨에 따라 1966년 10월 黨 代表者 會議에서 軍事·經濟의 竝進路線을 공식화한 이래 지금까지 北韓 經濟政策 運用의 基調로 삼아왔다. 이에 따른 과도한 軍事費 負擔은 북한경제의 발전에 상당한 障碍要因으로 작용하였다.

Ⅲ. 南北韓 經濟開發의 成果

1. 分斷 直後의 産業與件

8.15해방 당시 남북한의 산업배치는 『南農北工』으로 불리울만큼 特徵的으로 區分되어 있었다. 즉 北韓地域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地下資源과 水資源을 이용한 電力, 金屬·化學工業등의 産業施設이 配置되어 있었던 반면, 南韓地域은 주로 農業지대로서 약간의 輕工業 施設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南韓地域은 필요로 하는 電力, 中間財의 상당량을 北韓地域에서 供給받고 있었으며, 北韓地域의 부족한 식량은 南韓地域에서 供給받는 등 지역적 보완관계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南北分斷으로 이와 같은 相互補完關係는 결렬되어 버렸으며, 이에 따라 南北韓이 모두 經濟的인 타격을 크게 받았음은 물론이다. 특히 韓國은 工業生産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電力 및 資源供給源을 잃게 됨으로써 큰 타격을 받았으며, 잇단 사회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韓國의 産業은 거의 마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人口는 北韓地域에 비해 남한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규모는 당시 절대빈곤에 가까운 經濟的 狀況하에서 適正人口를 크게 超過하는 水準이었다.

1946년 南韓地域의 총인구는 北韓 人口의 2배 이상으로써 人口密度가 북한에 비해 거의 3배 水準에 달하였다. 특히 1950~1953년간의 韓國戰爭 이후에는 많은 北韓住民이 공산통치를 피해 대거 南韓地域으로 이주한 결과 戰亂에 따른 많은 인명 피해에도 불구하고 南韓地域의 인구밀도가 북한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維持하였다.

이러한 韓國의 인구과밀 현상은 당시의 經濟規模가 너무 低水準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생산적인 인적자원의 증가라기 보다는 오히려 扶養人口의 增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었다. 따라서 南北韓의 인구 구성면에서 北韓地域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經濟發展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工業化의 기반이 되는 賦存資源면에서도 北韓이 韓國보다 유리하다. 地下資源 매장량을 보면 철, 중석, 니켈, 마그네사이트 등 대부분의 鑛物이 北韓地域에 偏重 賦存되어 있으며, 특히 石炭埋藏量은 비교가 안될 만큼 北韓地域에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北韓은 石炭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重工業 우선 전략의 기초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林產資源 및 水資源도 北韓地域에 우세하게 부존되어 있다. 한반도의 총면적 가운데 73%가 山林面積인데, 그 중 60%가 北韓地域에 위치하고 있으며 압록강, 두만강을 비롯한 水資源도 북한지역이 풍부하다.

그러나 農業生産 여건은 平野가 많은 南韓地域이 북한보다는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고 있다. 北韓의 기후조건은 年中 빈번한 한냉전선의 영향으로 農業에 불리하며 農耕地에 있어서도 총면적의 14.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당시 南韓地域의 과밀한 人口를 勘案한다면,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韓國이 北韓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한 與件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韓國戰爭과 戰後 産業復舊

韓國戰爭으로 한국과 북한이 입은 經濟的 피해는 매우 막심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産業施設과 도로 및 항만시설들이 피해를 입었고 旣存의 生産組織과 流通秩序가 무너짐에 따라 産業生産은 극도로 沈滯되었다. 農業部門에 있어서도 비료의 공급이 원활치 못한데다가 水利施設의 파괴와 農業用水의 不足 등으로 그 당시의 주종산업인 農業部門의 生産마저 저조하였다.

休戰이후 韓國의 産業復舊事業은 주로 미국의 원조에 의해 推進되었다. 1954~59년의 전후 복구기간에 韓國이 美國을 비롯하여 우방과 國際機構로부터 받은 원조의 總額은 약 27억불에 달하였으며 이는 같은 期間中 總投資額의 약 70%에 달하는 規模이었다. 바꾸어 말해서 이 기간중에 이루어진 총투자중 국내저축으로 充當된 것은 30%에 不過하고 나머지는 외국의 援助에 依存한 것이었다.

휴전이후 미국의 對韓援助는 韓國戰爭으로 인해 황폐화된 산업의 복구와 그 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忠州肥料工場, 仁川 판유리공장 및 문경시멘트工場등이 이즈음 建設 되었으며 그 밖에 1백여량의 디젤기관차 購入, 170마일의 철도 노선의 建設과 마산, 삼척 및 당인리 第2火力發電所 建設도 이 시기에 推進되었다.

한편 北韓도 자신이 도발한 韓國戰爭으로 말미암아 각종 產業施設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북한은 韓國戰爭이 끝난 1954년에 3個年 經濟計劃을 樹立하고 產業生產을 1949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할 목적으로 戰亂으로 파괴된 產業施設을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이 戰後 復舊 3個年計劃은 蘇聯, 中國 및 東歐 共產諸國으로부터의 경제 및 기술원조와 勤勞者, 農民들의 勞動力을 토대로 計劃目標가 達成되었다고 北韓은 발표하였다. 이 計劃期間을 통하여 거둔 성과로는 파괴된 산업시설, 특히 重工業基地의 復舊·建設 이외에 社會主義的 경제형태를 強化한 것이었다.

사실상 이 計劃期間中 가장 重要한 특징적 변화의 하나로 社會主義制度의 강화에 따른 產業構造의 顯著한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9년의 鑛工業 생산액중 국영 및 협동단체의 生產比重은 90.7%였으나 1955년에는 98.3%로 높아졌으며 鑛工業部門의 민간생산은 주로 수공업적인 일용품, 소규모의 精米所, 打綿業, 建材業

에 한정되었다.

또한 농업 총생산액중에서 國營農牧場과 農機械 賃耕所를 포함한 社會主義的 部門이 차지하는 비중도 1949년에는 3.2%에 불과하였으나 1954~1958년에 集團農場化를 시행함으로써 協同農場과 國營農牧場의 生産比重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商業部門에 있어서도 1949~1955년에 國營 및 協同團體 商業의 比重이 현저히 제고되었다. 즉 同 期間中 소매상품 유통액 중에서 國營 및 協同團體 商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56.5%에서 84.6%로 높아진 반면, 個人商業은 43.5%에서 15.4%로 줄어들었다.

한편 1954~1956의 戰後復舊 3個年計劃 기간중에 北韓은 重工業의 우선적 발전과 輕工業의 急速한 복구발전을 도모한다는 基本政策에 따라 기본건설 투자를 工業部門에 집중하여 大規模 工場의 복구건설과 技術人力의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工業部門 生産은 1949년 水準에 접근하게 되었으며 工業部門에 종사하는 人口構成比도 높아졌다. 따라서 계획기간중 鑛工業 部門은 이례적인 높은 성장을 達成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되었다.

왜냐하면 計劃의 초기년도에 있어서의 鑛工業生産의 성장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後期에 가서는 相對的으로 減少하는 추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북한발표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같은 기간중의 鑛工業 成長率은 1954년에 51%, 1955년에 52%, 1956년에 27%로서 마지막 년도에는 急激히 減少하고 있다.

農業部門에서는 穀物生産을 전쟁 이전 水準으로 끌어 올리려던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다. 計劃目標 자체가 非現實的이라고 해서 3次에 걸쳐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에 비해 37% 나 더 많은 資金을 投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표에 미달하게 되었다.

3. 經濟的 成果

가. 經濟開發計劃과 그 成果

韓國에서의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推進過程을 살펴보면, 第1次 計劃期間(1962~1966년)중에는 政府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政府는 電力, 鐵道, 港灣, 通信 등 社會間接資本을 확충함으로써 개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계획 내용 자체도 物量目標와 推進手段들이 명기되는 다분히 구체적인 物量計劃이었다.

그러나 점차 經濟規模가 擴大, 복잡화되고 민간자본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계획 자체의 성격이 보다 추상화되고 誘導計劃의 형태로 변모해 갔다. 이와 더불어 第1次 計劃期間中에는 수출증대와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에도 주력하였다.

第2次 計劃期間(1967~71년)에는 電子工業, 石油化學工業의 개

발등 공업구조의 개편과 수출산업 주도의 고도성장, 高米價政策에 따른 農業所得의 增大를 도모하였다. 第3次 計劃期間(1972~76년)에는 造船施設의 확충, 綜合製鐵所의 완공, 石油化學工場의 건설확대 등 획기적인 重化學工業의 발달을 통해 공업구조의 高度化를 기하였다. 또한 4大江 流域開發을 비롯한 국토의 綜合開發에 착수하였으며 『새마을 운동』을 통한 農漁村의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로 農漁村 소득 극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第4次 計劃期間(1977~81년)에는 機械, 電子, 造船을 중심으로 하는 技術 및 熟練勞動 集約的 産業의 構成比率을 보다 높여서 산업구조를 高度化하는 한편, 그동안의 개발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經濟開發을 推進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韓國經濟는 198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79년초 이란의 회교혁명에서 비롯된 第2次 石油波動과 이에 따른 세계경기의 침체 등으로 對外經濟與件이 악화되었고 1980년에는 농작물 흉작까지 겹쳐 대내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야말로 韓國經濟는 『마이너스』성장, 높은 물가상승, 국제수지의 악화라는 二重苦의 어려움을 겪게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第5次 計劃(1982~1986년)이 樹立되었다. 第5次 計劃에서는 『안정, 능률, 균형』이라는 기본목표하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經濟構造의 再編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과거 經濟 成長政策으로 파생된 부문간 및 부

문내부의 불균형을 是正하고 변화된 국제 경제환경에 맞게 競爭力을 提高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기간중 財政緊縮政策과 通貨供給水準의 適正化를 통해 물가안정 基盤이 구축된 것은 第5次計劃의 획기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經濟計劃들은 어디까지나 市場經濟의 원리를 통한 기업간 自由競爭의 원칙을 토대로 하였으며 基幹産業과 그 밖의 중요부문에 대해서만 政府가 이에 직접 관여하거나 간접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方向으로 나간 것이다. 정부는 社會間接資本을 확충하여 민간기업의 投資環境을 造成하고 부족한 投資財源은 외자도입을 통해 充當토록하였다.

요컨대 한국은 自由市場經濟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국제협력의 확대와 수출신장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輸入自由化의 폭도 늘려나가는 開放體制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工業化 戰略에 따른 經濟計劃의 推進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第1次 計劃期間은 연평균 7.8%, 第2次 計劃期間에 9.6%, 第3次 計劃期間에 9.8%, 第4次 計劃期間에 5.8%, 그리고 第5次 計劃期間에 8.7%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한편 북한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분단 직후부터 土地改革, 主要産業國有化, 地下資源·山林·水域國有化와 같은 사회주의화 개혁을 단행 하였으며, 1958년 농업협동화와 수공업자, 상공업자의 협동화를 끝으로 생산관계의 社會主義化를 완

료함으로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1958년 이래 북한은 中央集權的 계획기구를 설치하고 개인의 自由意思에 기초한 生産活動을 일체 부인하였으며 자유시장이나 경쟁가격을 부정하는 토대위에서 生産財의 割當制, 消費財의 配給등 모든 경제활동을 中央으로부터의 명령에 따르는 指令經濟體制로 전환시켰다.

북한의 中·長期計劃에서는 社會總生産 및 주요 산업별 생산의 增加, 投資, 消費 및 軍事費 支出, 주요 財貨의 生産目標 등이 제시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차별 計劃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는데, 여기에는 企業所에 대한 모든 財貨의 年間生産目標와 生産指令이 함께 포함되며 아울러 자원의 용도별 배분도 제시된다.

북한은 1947년부터 經濟計劃을 실시하였으나 북한에서 社會主義的 經濟의 「틀」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인 經濟計劃이 시작된 것은 1961년 第1次7個年計劃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6個年計劃, 第2次7個年計劃을 실시한 이래, 현재 第3次 7個年計劃을 추진중에 있는데 각 계획 기간별 當面課題과 計劃目標 및 實績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第1次7個年計劃(1961~70)

북한은 1961년부터 1950년대 후반의 5個年計劃에서 구축된 工業基盤을 더한층 견고하게 발전시키고 주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한 7個年計劃에 착수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경제는 機械制作工業을 중심으로 한 重工業 育成政策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공업화를 위한 초보적인 기반 조성이 불균형한 상태로나마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함께 북한의 對內指向的 工業化 정책의 한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1961년 7월의 쿠바 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4大軍事路線을 채택하고 軍事部門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였다. 또한 중·소의 理念紛爭 격화에 따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북한 援助가 격감됨에 따라 계획 달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66년 10월 勞動黨 代表者會議를 통해 계획기간을 3年間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당초의 계획목표에 미달하였다.

(2) 6個年計劃(1971~76)

북한은 1970년 11월 12일 勞動黨 5次大會를 통해 3大技術革命 수행과 산업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 6個年計劃을 마련하여 1971년부터 착수하였다. 6個年計劃期間中에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西歐로부터의 자본, 技術 및 設備의 도입에 관심을 가진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제국으로부터 도입한 借款 및 延拂輸入貸金

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75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外債問題를 야기하였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수송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남으로써 당초 計劃目標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1975년 8월 갑자기 동계획을 1년 6개월 早期 完遂했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그후 무려 2年間의 완충기를 설정, 부진한 부문을 조정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사실상 계획기간이 1년간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第2次7個年計劃의 초기부터 북한경제는 공업생산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3) 第2次 7個年計劃(1978~84)

1978년부터 착수된 第2次7個年計劃에서는 人民經濟의 『主體化·現代化·科學化』를 표방하고, 1977년에 비하여 國民所得 1.9배, 工業總生産 2.2배, 알곡 1,000만톤 생산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目標年度인 1984년이 지나도록 동 계획의 완수 및 추진결과에 대해 일체의 발표가 없다가 1985년 중앙통계국을 통해 동 계획이 1984년 말을 기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북한은 「社會主義 經濟建設 10大展望目標」, 「4大 自然改造事業」등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대외경제사업 및 무역확대

·발전방침 채택, 合營法制定·公布등과 같은 경제적 대외개방조치를 취했으나 실적은 부진하였다.

이와같은 의욕적인 경제시책하에 第2次 7個年計劃은 예정대로 1984년에 종료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실적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북한은 第3次 7個年計劃에 착수하기까지 2년간의 調整期를 거쳐야 했다.

이 시기에 주목할 점은 第2次 7個年計劃 후반기부터 북한에서도 주민들의 消費生活에 대한 욕구충족 문제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4) 第3次 7個年計劃(1987~93)

第3次 7個年計劃은 第2次 7個年計劃과 마찬가지로 經濟의 主體化·現代化·科學化를 기준과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1.7배(연평균 7.9%), 공업생산 1.9배, 농업생산 1.4배, 10大展望目標 실현등을 계획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第3次 7個年計劃은 그 추진방침이 第2次 7個年計劃과 크게 다를 바 없고, 특히 計劃目標는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전의 경제계획에 비해 下向 책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그 만큼 어려우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동 계획에서 주목할 것은 ① 技術革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② 貿易과 對外 經濟協力의 확대·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技術革新을 종전처럼 노력동원의 補助手段으로서가 아니라, 經濟開發의 관건으로 보고 있으며, 또 무역과 대외 경제협력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第3次7個年計劃중 國民所得의 3.4%를 과학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한국이 6次5個年計劃(1987~91)에서 과학 기술투자를 3%까지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분야에 대한 북한의 의욕을 짐작할 수 있다.

第3次7個年計劃의 주요정책 방향과 북한 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은 동 계획기간중 특히 대외 경제부문에 있어서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1970년대 중반부터 계속되어 온 外債問題를 비롯, 경제체제의 硬直性 그리고 金正日 승계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대외개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產業間의 構造

韓國의 근대화는 自由資本主義體制와 開放體制下의 國際分業主義를 바탕으로 農業보다는 工業을, 수입대체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工業化政策은 (1) 輸入 → 生產(輸入代替) → 輸出의 類型에 의하되, (2) 이러한

과정은 消費財 → 中間財 → 資本財로, 나아가서는 知識 및 情報産業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형태로 具體化되었다.

개발초기의 輕工業部門의 개발은 輕工業이 投下資本의 懷妊期間이 짧고 勞動集約的이며 技術習得이 용이한데다가 당시의 資本不足, 過剩人口, 技術落後 등의 공업화 여건에 비추어 시의에 알맞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당시의 輕工業 育成政策은 輸入代替와 동시에 수출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韓國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技術集約的인 새로운 産業의 開發을 모색하였다. 즉 '60년대의 産業開發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第3次 5個年計劃에서는 重化學工業의 育成·發展을 통한 공업의 고도화를 꾀한 것이다.

이와 같은 開發戰略을 채택한 결과 그동안의 농업과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크게 개선되었다. 즉 農漁業의 구성비는 經常價格 基準으로 第1次 經濟開發計劃 시작년도인 1962년에 36.6%였던 것이 第2次 計劃의 마지막 년도인 1971년에는 27.0%, 第4次計劃의 마지막 년도인 1981년에는 18.0%로 低下된 반면에, 鑛工業의 比率이 같은 기간에 16.2%. 22.4%, 30.9%로 각각 높아졌다.

그리고 이 期間동안에 工業生産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였는데 1962년에는 輕工業이 73.2%로써 압도적인 比率을 점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점차로 그 構成比가 低下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 重化學工業의 비중은 크게 증가, 1985년 不變價格 基準으로 1990년 현재 65.0%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輕工業의 생산도 産業의 高度化 및 科學·技術의 蓄積에 따라 高附加價値 商品의 생산으로 그 체질을 착실히 轉換하여 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는 전통적인 農業中心의 전근대적 산업구조로부터 工業中心의 근대적 산업구조로 이행되었으며 工業生産物의 내용도 부가가치가 높은 商品의 생산으로 轉換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北韓에서의 産業構造는 인위적인 『改造』의 방식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北韓은 해방과 더불어 蘇聯型의 社會主義 工業化를 그대로 모방하였는데, 이것은 經濟建設의 목표를 자기 완결적인 自立經濟를 確立하는데 두고 重工業 優先政策을 전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北韓의 年平均 總投資額 가운데 鑛工業部門이 차지하는 投資比重은 戰後復舊 3個年計劃(1954～56)에서는 49.6%, 第1次 5個年計劃(1957～60년)에서는 51.3%, 第1次7個年計劃과 그 延長期(1961～60년)에서는 60%에 달했으며 이는 第3次 7個年計劃이 추진중인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鑛工業 投資額의 구성을 보면, 重工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重工業과 輕工業의 상대적 비율은 1954～56년에는 81.1%대 18.9%, 1957～60년에는 82.6%대 17.4%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投資比率의 커다란 차이는 결과적으로 産業部門間의 斷層現象을 誘發시킴으로써 마침내 成長을 제약하는 구조적 障碍要因이 되고 말았다.

'60년대 전반기에 북한은 7個年計劃의 기본과제의 하나로 『住民生活의 向上』을 내세워 輕工業部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推進하였던 이른바『經濟와 軍事建設竝進路線』을 그대로 견지하였기 때문에 輕工業에 대한 연평균 투자율은 28%에 불과하였다.

軍事·經濟 竝進策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軍費支出이 대폭증대됨으로써 경공업 분야에 돌아갈 투자의 몫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現象이었다. 이러한 병진책의 지속은 이후 北韓의 産業構造를 더욱 왜곡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최근 이른바 『輕工業 革命』, 『인민봉사 혁명』등의 구호아래 북한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각종의 輕工業製品의 生産에 주력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북한이 지금까지 소홀히 여겨왔던 輕工業 部門의 落後性을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목이 될 뿐이다.

다. 南北韓의 GNP 增加 推移

이제 南北韓 經濟開發의 成果를 대표할 수 있는 GNP의 成長趨勢를 통해 動態的으로 살펴보도록 하자(그림1 참조).

'6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經濟成長 속도에 있어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經濟開發 與件

이 한국에 비해 매우 유리하였던 반면에 한국은 蓄積資本의 빈약, 정치·사회적 혼란, 북한주민의 대거 월남으로 인한 扶養人口의 增加등이 경제를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는 그 樣相이 달라졌다. 한국은 1962년부터 本格的으로 추진된 經濟開發計劃의 成功으로 침체된 경제가 서서히 활기를 찾았으며 '60년대 후반부터는 相對的으로 성장이 빨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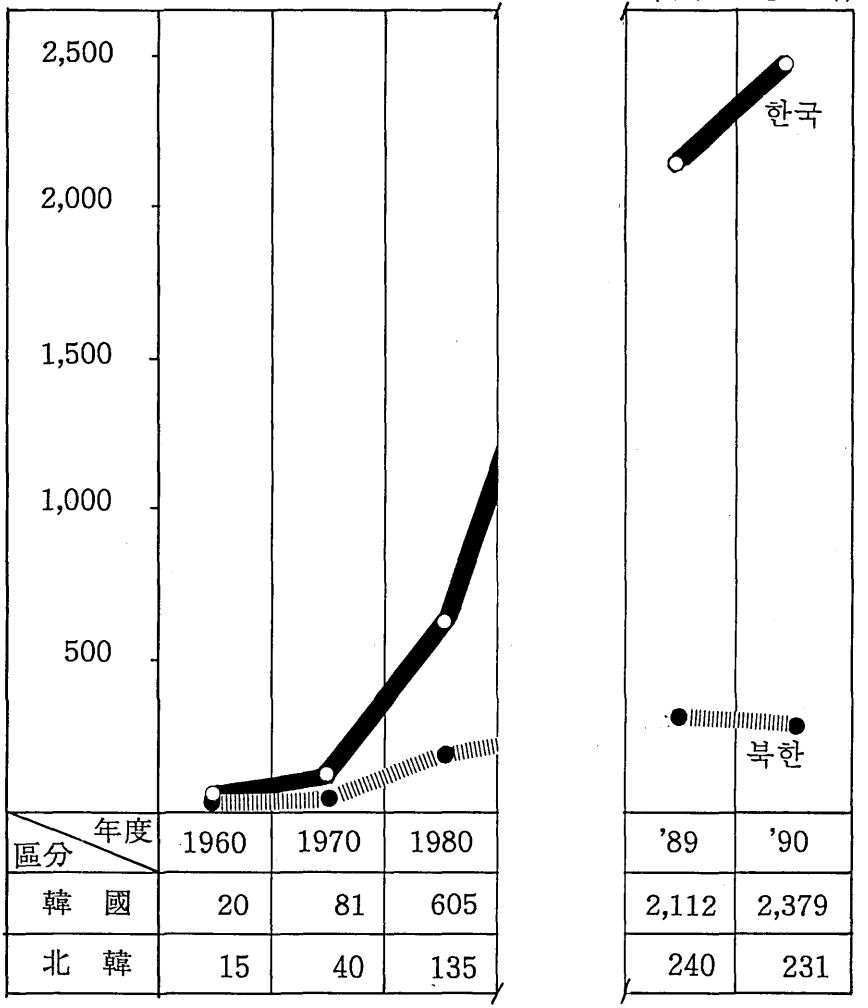
북한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經濟成長이 점차 둔화되어 갔다. 이것은 북한이 私的所有의 否認으로 비롯된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의 상실, 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해 低生産性을 면치 못하였고 더욱이 폐쇄체제의 고수로 對外 經濟協力과 先進資本 및 技術導入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 優先政策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산업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빚어진 결과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남북한 經濟力量의 커다란 격차는 근본적으로는 經濟體制 및 政策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경제 總量規模의 증가 추이에 따라 인구 1人當 GNP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음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은 지난 1974년도를 分岐點으로 하여 1人當 GNP가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韓國經濟가 總量面에서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人當 GNP가 북한을 앞서는데 거의 10년이 걸린 것은 그 만큼 한국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南北韓 GNP變化推移

〈單位 : 億달러〉



區分 \ 年度	1960	1970	1980	'89	'90
韓 國	20	81	605	2,112	2,379
北 韓	15	40	135	240	231

註) '89, '90년도 북한 GNP 數値는 최근 재평가하여 推計한 것임.

Ⅳ. 主要 部門別 現況

1. 總量部門

가. 人口 및 領土

1990년도 南北韓의 人口는 韓國이 42,869천명, 北韓이 21,720천명으로 推定되고 있다. 人口增加率은 한국이 0.93%, 북한이 1.61%로서 韓國보다 北韓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북한의 人口增加率이 조금씩 減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經濟活動人口는 한국이 18,487천명으로 총인구의 43.1%를 점유하며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經濟活動人口의 비율인 經濟活動參加率은 60.0%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북한의 經濟活動人口는 9,834천명으로 推算되는 바, 이는 북한지역 總人口의 45.3%이고 經濟活動 參加率은 67.8%로서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북한은 非經濟活動 人口에 속하는 豫備兵力 이외의 正規軍만 하더라도 그 수가 99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生産年齡層에 있는 학생수는 15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特別獨裁對象地域 및 敎化所등의 많은 受容者를 비롯하여 가사종사자, 연소자 및 心身障碍者 등이 非經濟活動人口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와 제도에 있어서 表面的으로는 非經濟活動人口의 폭이 比較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經濟活動參加率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는 북한이 勞力動員 最大化 政策의 일환으로 非經濟活動人口數를 減縮시키는 갖가지의 施策을 展開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 실례를 들면 1970년 11월 第5次 黨大會에서 "여성들을 부엌으로부터 解放시킨다"는 미명 아래 대부분의 가정주부를 生産活動에 참여케 하고 있는 것이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黨의 方針을 強調하면서 社會扶助의 對象인 노인들까지 勞動의 對象으로 利用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높은 經濟活動 參加率을 보이고 있지만, 勞動生産性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노동이 非自發的 勞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非自發的 勞動이란 자유로운 노동의 參與와 移動을 保障받지 못하는데 따라 생겨나는 勞動으로서, 勞動意慾이 크게 喪失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勞動生産性은 低水準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 내부의 구조적 硬直性, 기계설비의 노후화, 전반적인 産業技術 수준의 落後 등도 直接·間接的으로 勞動生産性을 低下시키는 요인으로 作用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經濟는 아직까지도 單純 勞動力 爲主의 經濟建設에만 依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계속적인 勞動人

口의 增加와 높은 經濟活動 參加率에도 불구하고 낮은 勞動生産性으로 인한 構造的인 勞動力 不足 현상을 초래하는 跛行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韓半島 全體 面積은 22만여㎢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남한지역은 9만 9천여㎢로서 한국이 總面積의 45%, 북한이 12만 2천여㎢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領土의 이용면에서 있어서 한국은 平野地帶가 비교적 많고 氣候條件이 좋아서 農業生産과 交通運輸에 유리한 立地條件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山岳地帶가 많고 낭림산맥을 分水嶺으로 하여 동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農業 및 交通運輸面에서는 한국보다 不利한 조건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속광물, 석탄등의 地下資源과 水資源이 북한에 豐富하게 存在하며 自然景觀 또한 秀麗하여 工業化 및 觀光資源의 開發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나. 年度中 經濟成長

1990년도의 韓國經濟는 原油導入單價의 상승으로 인한 國際收支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民間消費와 建設投資의 增加趨勢가 확대되는 한편 設備投資가 好轉되고 수출이 增加함으로써 9%에 이르는 經濟成長을 실현하였다.

기간중 전반적인 産業活動을 보면, 건설업이 活況을 보였으며 製造業의 성장이 다소 回復되었다. 특히 建設業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住宅供給 擴大施策에 힘입어 '79년이래 가장 높은 22.2%의 成長率을 기록하였다.

한편 製造業, 纖維·衣服 등 輕工業生産이 輸出減少로 低調하였지만 運輸·建設裝備, 一般機械 등에 대한 내외수요의 증가로 重化學工業 생산이 크게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간중 勞使紛糾가 勞使兩側의 交涉努力과 勞使安定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크게 減少됨으로써 稼動率이 80%선에 이르게 되었으며 成長勢도 8.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農林·漁業은 기상조건의 악화로 말미암아 3.9%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운수·금융 등의 서비스업은 實物生産活動의 호조로 成長勢가 확대되었다.

對外貿易에 있어서는 기간중 우리나라의 經常收支가 '86년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貿易收支의 경우 수출이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미국 등 先進國의 景氣鈍化로 부진을 보인 반면, 수입은 國際油價 상승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의 輸入負擔 증대와 設備 自動化 投資擴大 및 建設景氣 호조에 따른 建設 重裝備·機資材의 수입증가에 따라 연중 2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한편 기간중 북한의 經濟成長率은 北韓政權樹立이래 최악의 成長率인 마이너스 3.7%, 負의 成長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數値는 第3次 7個年計劃(1987~1993)이 실시된 이래 成長

率이 해마다 하락하고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北韓經濟가 長期沈滯 局面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의 '90년도 經濟不振은 전년도에 개최된 『平壤祝典』에 50억불에 달하는 막대한 財源을 投入한데 따른 휴유증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기간중 生産基盤擴充을 위한 新規投資가 이루어지지 못한데다가, 석탄생산과 原由導入量의 감소로 말미암아 심각한 에너지 부족에 逢着함으로써 産業施設의 稼動率이 저하되었으며, 冷害·豪雨 등 기후 불순으로 穀物生産量마저 전년도에 연이어 흉작을 기록한데 基因한 것이다.

더우기 중·소 및 동구제국이 급속한 改革·開放政策推進과 經濟的 實利優先 政策을 追求함으로써 蘇·東歐圈과의 經濟協力이 크게 萎縮되는 등 '89년이래 북한의 對外 經濟環境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북한의 慢性的인 經濟沈滯는 다음과 같은 構造的인 問題點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생산수단의 國有化로 인한 勞動意慾의 저하 및 生産性의 減少, 閉鎖的 經濟體制로 인한 기술낙후, 중공업 우선정책의 추진으로 인한 여타 産業部門과의 심한 不均衡 유발 및 投資財源의 非效率性 增大, 行政 管理體系의 構造的 硬直性·非效率性 등이 북한경제발전을 저해하는 構造的 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1990년도의 북한경제는 종래의 基本政策 路線이 변화하지 않은 延長線上에서 『自力更生路線에 입각한 增産·節約鬪爭』

을 經濟施策 方向으로 내세움으로써 全般的으로 慢性的인 沈滯局面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뭏든 '90년도 北韓經濟가 負의 成長을 기록하게 됨에 따라 남북한 經濟總量의 규모는 더욱 현저한 隔差를 보이고 있다. 1990년 현재 한국의 GNP는 2,379억불이며 1人當 GNP는 5,569불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GNP가 231억불로서 韓國의 1/10, 1人當 GNP는 1,064불로서 韓國의 약 1/5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남북한 經濟總量의 隔差는 지난 해보다 더욱 擴大되었다. 이것은 經濟成長의 이른바 『南高北低』현상이 固着化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自由市場秩序를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는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왔고, 반면에 북한은 체제의 劃一性과 硬直性에서 야기되는 勞動, 資本 등 生産要素의 浪費와 非效率的인 투자로 말미암아 만성화된 低成長經濟에서 아직까지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資源의 配分面에서 볼 때, 經濟規模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軍事費 支出이 經濟成長을 沮害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1990년의 경우 GNP에 대한 軍事費의 構成比率은 21.5%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군사비 부담은 그 負擔이 큰 만큼 經濟成長의 潛在力을 蠶食하고 따라서 經濟沈滯의 根本的인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軍事費/GNP比率은 4.1%에 불과하여 북한

의 높은 軍事費 負擔과는 對照를 이루고 있다.

〈表 1〉 主 要 總 量 指 標

1990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韓國 : 北韓
人 口	千 名	42,869	21,720	2.0 : 1
人口增加率	%	0.93	1.61	—
經濟活動人口	千 名	18,487	9,834	1.9 : 1
經濟活動參加率	%	60.0	67.8	—
面 積	千 ㎢	99.3	122.1	1 : 1.2
G N P	億弗	2,379	231	10.3 : 1
1 人 當 GNP	弗	5,569	1,064	5.2 : 1
經濟成長率	%	9.0	−3.7	—
軍事費/GNP	%	4.1	21.5	—
對 美 換 率	원	707.97	2.14	—

資料 : 韓國은 經濟企劃院, 北韓은 統一院

2. 財 政

韓國은 私有財産制度를 바탕으로 한 民間의 經濟活動이 主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財政의 比重은 매우 낮다. 따라서 한국의 재정은 基本的으로 民間部門의 自律的인 經

濟活動이 원활해지도록 경제적 여건을 보장하고 自由市場經濟를 沮害하는 요인을 예방하거나, 除去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재정은 北韓經濟의 모든 부문을 반영한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經濟活動이 재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의 역할은 中央集權的 統制經濟를 수행하여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가. 歲　出

1990년도 한국의 一般會計部門 歲出規模는 前年度에 비해 26.7% 증가한 27조 4,367.7억원(387.5억불)이다. 部門別 歲出構成比는 一般行政費 10.2% 防衛費 25.1%, 開發費 43.3% 地方財政交付金 10.1%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주로 債務償還과 재정의 投·融資 기능을 補強하는 財源으로 지출되었다.

1990년도 한국의 財政運用은 『福祉·均衡·節制』를 基本方向으로 설정하고 현실적인 歲入水準을 바탕으로 급증하는 복지 財政需要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財政規模 增加率을 정상화하였다. 이러한 可用財源으로 소외계층 및 낙후부문에 대한 福祉財政機能을 확충함으로써 장기적인 社會安定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구조 조정과 持續的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社會間接資本 需要充足을 통해 經濟全般의 生産性 向上과 投資振作에 기여토록 하였다.

또한 農水産物 輸入開放에 대처하여 農水産業의 競爭力 향상을 위한 農水産業 構造改善 등 農漁村發展 綜合對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농어민의 부채경감 소요와 農漁村 生活環境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低所得層의 住居安定을 위한 永久 賃貸住宅 建設, 全國民 醫療保險 실시 및 醫療保護의 內實化, 老人交通費 支援 擴大 등을 통하여 低所得層 및 노인에 대한 福祉增進을 도모하였고, 『맑은 물』공급을 위하여 上下水道 등 環境改善 投資를 확대하고 教育環境 개선에 集中支援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지역간 均衡發展을 위한 西海岸地域 開發投資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全國土의 有機的인 연결과 産業活動支援 등을 위한 輸送網 投資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道路鋪裝率은 '89년 68%에서 '90년 76%수준으로 높였으며, 도시 交通難 해소를 위한 大都市 地下鐵 建設에 대한 財政融資 支援을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中小企業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中小企業 構造調整基金을 확충하는 등 中小企業에 대한 금융 및 技術支援을 계속하였으며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핵심과제인 科學技術開發을 위하여 尖端科學技術 및 基礎科學研究支援을 강화하였다.

한편 1990년도 북한의 財政運用은 『金日成 新年辭』 및 黨中央委 第6期 第17次 全員會議('90. 1. 5~1. 9)에서 제시된 『自力更生原則』과 『增産·節約鬪爭』에 입각한 經濟建設 추진에 역점이 두

어졌다.

財政收支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黑字基調를 견지하였으나 黑字規模는 前年度의 2억 2,516만원에 비해 1억 7,693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는 바,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연도중 對內外 經濟與件의 악화에 따라 內資動員의 극대화를 통한 投資財源 조달에 부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1990년도 세출규모는 北韓貨幣로 355억 1,348만원(166억불)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그리고 歲出 構成比는 對南平和攻勢의 일환으로 군사비 12.0%만을 강조하였을 뿐 나머지 費目에 대하여는 言及이 없거나 前年比 增加率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歲出 構成比 가운데 人民經濟費와 社會文化施策費에 軍事費의 상당부분을 은폐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財政支出 構成比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兵力維持費, 軍事部門 投資費 등을 감안하여 推計하여 본 결과 실질적인 군사비 지출 구성비는 歲出總額의 30%수준으로 평가되었다.

1966년부터 공식 발표된 북한의 歲出 構成比를 살펴보면 軍事費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966년의 경우 人民經濟費가 68.4%, 軍事費가 10%이었으나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인민경제비가 44~50%로 減少되고 대신 軍事費는 31~3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72년 이후에는 다시 55%이상으로 人民經濟費가 늘어나면서 軍事費는 15~17%수준으로 낮게 발표되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일부 『人民軍』을 經濟建設에 投入, 『軍 兵力의 平和的 利用』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으며 발표되는 軍事費의 비중 역시 15%이하의 水準에서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軍事費가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은 북한이 필요에 따라 意圖的으로 軍事費를 타비목에 은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1966년까지 10%이하로 발표해 온 軍事費를 1967년에 30.4%로 대폭 증가시켜 발표한 것은 종전의 人民經濟費 등 타예산 項目에 은폐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60년대 중·소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북한이 獨自路線을 標榜하면서 南侵野慾을 노골화하였던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후 1972년부터 軍事費가 절반으로 감소되고 人民經濟費가 다시 증가한 것은 東西和解와 南北赤十字會談 등 남북간의 접촉에 따라 對外宣傳을 고려하여 평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군사비를 타비목에 다시 은폐시켰기 때문이다.

그 實證的인 증거로는 1972년 이후 人民經濟費가 증가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北韓經濟의 成長은 鈍化一路에 있었고, 또한 명목상의 軍事費가 격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준비를 위한 軍事力 增強이 계속되어 온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이 발표한 軍事費 이외의 1990년도 歲出構成比를 살펴보면 人民經濟費 67.6%, 社會文化施策費 18.8%, 機關管理費 1.6%

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歲出 項目別 內譯을 살펴보면, 人民經濟費의 支出 增加率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基本建設投資 增加率(7.2%)은 人民經濟費 增加率(6.6%)을 상회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 消費生活 水準 향상보다는 基幹産業 시설에 주력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업부문별 投資支出은 電力工業, 採取工業 및 金屬工業 부문에 優先을 둠으로써 前年對比 8.1%의 增加率을 나타내었는 바, 이는 北韓經濟의 隘路要因이 되고 있는 에너지 및 原資材의 증산에 투자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社會文化施策費의 증가율은 6%이지만 그중 敎育事業費와 保健事業費는 각각 4.8%, 5.2%에 불과하고 보다 많은 豫算이 이른 바 白頭山 一帶의 革命戰跡地·史蹟地 造成 등 金日成 父子 偶像化와 관련된 政治敎養事業에 支出된 것으로 보여진다.

아뭏든 북한의 이와 같은 政治·軍事 優先的인 財政運用은 財政의 效率을 저하시키고 財源의 浪費 要因이 더욱 深化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북한의 체제 특성상 재정의 효율적이고 合理的인 運用 與否가 經濟的 成果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이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는 만성적인 經濟沈滯 現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財政 運用方式으로의 전환의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나. 歲　　入

한국과 북한은 이념과 制度가 서로 다른 만큼 財政收入의 源泉에 있어서도 아주 판이하다.

한국의 경우 財政收入은 租稅, 稅外收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 이들의 構成比는 각각 85.5%, 3.0%로서 租稅收入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에는 소위 『社會主義 經理 收入金』으로 대부분의 歲入豫算을 充當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서는 生産活動 결과 수반된 附加價値의 대부분이 財政收入으로 흡수되고 있다. 이는 財政規模가 GNP의 72%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社會主義 經理 收入金의 내용은 去來 收入金, 國家企業利益金, 協同團體 所得稅, 其他 收入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각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 收入金은 社會主義 經理 收入部門의 55%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가장 주요한 歲入源으로서 북한은 이에 관하여 "사회 순소득 부문중 국가의 中央集中的 純所得에 속하는 社會主義 經理에서 파생된 國家利潤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一般的으로 이해되고 있는 한국의 間接稅와는 根本的으로 다른 것이 된다.

즉 모든 生産手段과 대부분의 財貨가 國·公有化 되어 있고 經

濟活動 역시 政權當局의 유일적인 計劃과 統制하에 움직이는 북한에서는 流通過程을 통해 거두어 들이는 수입은 모두 당국의 이윤이지 세금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거래 收益金은 주로 消費財에 부과되고 있고 또 生產財 生產部門에서 창출된 사회 純所得과 일부 서비스부문의 생산에 대해서도 거래 收益金이 賦課됨으로써 결국은 최종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므로 間接稅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기업 수익금은 獨立採算制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의 企業所 및 生產工場에서 일정기간동안 얻어진 이윤중 일정비율의 자체경비를 공제한 殘餘基金을 中央當局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總豫算收入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協同團體 所得稅는 각종 協同團體의 생산활동에서 얻어진 수입중 일정비율을 중앙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其他 收入金은 減價償却 回收金 및 罰課金, 關稅, 援助收入 등으로 구성되며 歲入 總額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74년 이전까지 協同團體所得稅, 住民所得稅, 地方自治稅 等이 歲入의 일부를 차지하였으나, 1974년 4월부터 稅金制度가 폐지됨으로써 『稅金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고 내외에 선전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所得稅와 住民稅 등은 稅金이라 할 수 있지만 社會主義 經理에서 얻어지는 收益은

주인인 국가가 마땅히 차지해야 하는 利潤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코 세금이 아니라고 強辯하고 있는 것이다.

〈表 2〉 主要財政指標

(1990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財政規模	億弗	388	166
財政負擔率	%	16.3	71.9
軍事費支出	億弗	97.3	49.6
軍事費/財政規模	%	25.1	29.9
財政增加率	%	26.7	6.4

資料：韓國은 經濟企劃院, 財務部, 北韓은 統一院

3. 農 水 産 業

가. 南北韓 農業部門의 主要 特徵

南北韓 농업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個人營農 體系와 북한의 集團營農 體系에서 출발한다. 한국은 個人의 능력과 의사가 保障되고 있는 만큼, 생산활동 역시 自律的이며 積極的인 性向을 갖는다. 이에 대해 북한농업의 생산활동은 個人의 능력이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中央當局의 결정에 의해 集體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受動的이며 消極的인 特徵을 갖는다.

北韓當局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에 대해 『主人精神』을 반복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生産意慾의 消極化 傾向을 端的으로 말해 준다고 할 것이다.

結果的으로 南北韓의 農業 生産力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60년대 중반이후 보다 積極的인 農業政策을 추진한 결과 쌀·보리의 自給은 물론 현저한 農家所得의 증가를 가져왔다. '70년대에 들어와서 農業總生産指數가 과학적인 營農技術에 힘입어 연평균 5.9%의 높은 成長勢를 나타냈으며 '80년대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기상조건의 악화로 『마이너스』成長을 기록하는 등 기복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연평균 5%의 成長 水準을 계속 維持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의 農業 生産力은 絶對的으로나 相對的으로나 부진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이것은 험준한 地形地勢, 불리한 氣候條件등 自然條件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農業의 集團化』라는 제도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1966년부터 集團的 營農體系에서 오는 生産減退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이른바 『分組 管理制』를 실시, 생산활동의 책임을 細分化시키고 있으며 특히 '80년대에 들어와서는 早熟多數穫 품종의 開發을 통한 生産力 提高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産業構成比는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남북한 모두가 減少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특히 工業部門의 高度成長으로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한국의 國內總生産에서 차지하는 農水産業 부문의 生産比重이 '60년대의 36% 수준에서 '70년대에 25%, '80년대에 들어와서는 15%이하, '90년도에서는 10%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공업부문의 지속적인 高度成長에 기인한 것이다.

북한도 역시 공업과 농업의 總生産額 가운데 農業生産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년대의 26~28%수준에서 '70년대에는 24~26%, '80년대 이후에는 23~25% 수준으로 점차 減少되는 趨勢에 있다.

制度的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농업에 참여하는 형태 역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국민들이 자유의사에 따

라 농업부문의 生産活動에 참여하고 있는 비해 북한은 중앙당국이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一方的으로 配置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部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며, 북한의 農業生産性 低下의 根本的 원인이 된다.

또한 경지면적 및 농업인구의 변동에도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70년대부터는 耕地面積과 農業人口가 모두 줄어드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中央當局의 강력한 管理·統制下에서 모든 經濟活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과 같은 離農現狀이 있을수 없으며, 耕地面積이나 農業人口의 절대적인 규모는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對照的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한 農業의 주요 특징을 요약·정리하여 보면 〈表 3〉과 같다.

〈表 3〉 農業部門의 主要 特徵

區分	韓國	北韓
營農體系	個人營農	集團營農
政策의 性格	誘導的	統制的
農業의 參與	個人의 自由意思에 따라 參與	中央當局의 一方的配置
生産意慾	積極的	消極的
生産活動	自律的	受動的
農耕地規模	漸次的인 減少趨勢	꾸준한 增加趨勢
農業人口	〃	〃
農業生産性	相對的으로 높은 水準	낮은 水準
全産業中 農業比重	大幅的으로 遞減	小幅的으로 遞減

나. 農業生産의 基盤

1990년도 韓國의 總耕地面積은 210.9萬 町步로서 지난해 보다 1.8萬 町步가 줄어 들었다. 그 중 논은 耕地整理 擴大에 따른 밭의 地目轉煥과 干拓 등으로 前年度 보다 8千 町步가 줄어든 134.5萬 町步였으며 밭은 1萬 町步가 줄어든 76.4萬 町步였다. 이에 따라 韓國의 논과 밭의 構成은 각각 南韓地域 總耕地面積의 63.8%, 36.2%로서 전년보다 논의 構成比가 다소 높아졌다.

한편 北韓은 期間中 人民軍 및 靑年突擊隊 등을 投入, 平安北道 가도 干拓地를 비롯한 13個 地域에서 干拓事業을 推進하였으나 그 實績이 不振하였다. 1990年度 北韓의 總耕地面積은 前年度와 같은 水準인 214.1萬 町步이며 그 중 논 面積은 64.5萬 町步로서 北韓 耕地 全體面積의 30.1%를, 밭 面積은 149.6萬 町步로서 全體 面積의 69.9%를 占有하게 되었다.

따라서 南北韓의 耕地面積은 절대규모면에서는 北韓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논과 밭의 構成面에 있어서는 韓國은 논농사 중심, 北韓은 밭농사 중심으로 특징될 만큼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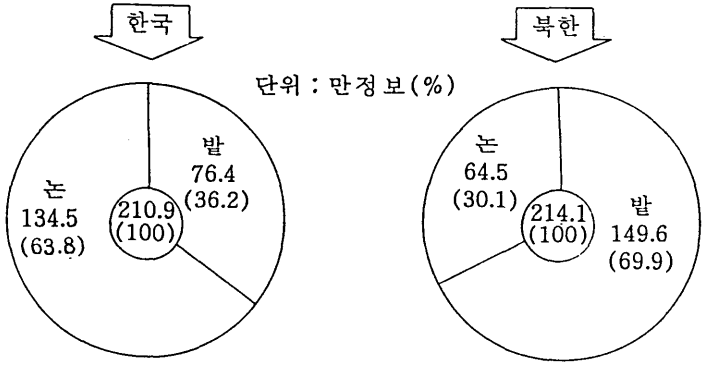
南北韓의 農家人口는 1990年 現在 韓國이 646萬名으로 前年의 679萬名에 비해 4.8%가 減少되었으며 農家戶數도 177萬戶에서 175萬戶로 다소 減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北韓의 農家人口와 農家戶數는 각각 821萬名, 185.4

萬戶로서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에 따라 農家戶當 耕地面積을 計算하여 보면 韓國은 1.21町步로서 前年보다 多少 增加된 반면, 北韓은 1.15町步로서 前年보다 줄어든 傾向을 보였다.

즉 韓國은 農家人口의 繼續的인 減少로 時間과 더불어 農家戶當 面積이 증가되는 반면, 북한은 農家人口의 계속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農家戶當 面積이 減少되는 대조적인 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南北韓의 耕地面積



農業의 機械化를 보면, 韓國의 경우 '70年代 중반이후 持續的인 重工業 部門의 발전 및 농촌 勞動力 不足의 影響으로 農業의 機械化가 급속히 推進되었다. 年度中 韓國 農家의 農機械 保有臺數는 耕耘機, 트랙터 등 耕耘整地用 79.2萬臺, 이앙기 13.8萬臺, 收穫機 9.9萬臺 水準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農家의

農機械 購入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農機械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1981년이래 機械化 營農團을 育成하여 왔다.

한편 北韓은 『農村經理의 機械化』를 내세워 각 協同農場에 트랙터 등 農機械를 配置하고 協同農場의 營農作業을 支援하기 위해 『農機械 作業所』를 運用하고 있으며, 『第 3 次 7個年計劃』 期間('87－'93)중 農耕地 100町步當 10～12臺의 트랙터 保有를 目標로 하고 있으나 연도중 농기계의 生産·普及實績이 매우 부진하였을 뿐 아니라 旣存의 農機械 마저 에너지부족, 빈번한 고장등으로 稼動率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化學肥料의 供給實態를 보면 1960年 忠州肥料工場의 尿素肥料 生産으로 시작된 韓國의 化學肥料工業은 그간 政府의 食糧自給化 努力에 따라 괄목할 만한 成長을 이루어 왔으며, '60年代末부터는 肥料의 完全自給이 可能해졌다. '80年代 들어 一時的으로 生産量이 減少되었으나 1988年부터 生産이 다소 늘어나고 輸出도 높은 伸張勢를 보였다.

北韓은 解放以前에 建設된 흥남肥料聯合企業所(窒素肥料生産), 남흥青年化學聯合企業所(尿素肥料生産)를 비롯한 10餘個의 主要工場에서 年間 約351.4만톤의 化學肥料 生産能力을 갖추고 있으나 化學肥料工場 施設이 대부분 老朽化되고 化學肥料 原料인 인정광, 유화철 및 石炭, 電力등의 에너지供給 不振으로 肥料生産이 저조하여 供給에 蹉跌을 빚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北韓은 아직까지 外國으로부터 카리肥料 全量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며, 均衡的인 肥料體系를 갖추지 못하여 農産物 生産에 支障을 주고 있다. 최근 北韓이 第3次 7個年計劃의 力點事業의 하나로 年 51만톤 규모의 사리원 카리肥料工場과 年 80만톤 규모의 순천비날론 聯合企業所 尿素肥料工場 등을 建設中에 있는데 이는 北韓 肥料體系의 改善을 위한 하나의 摸索이라고 할 수 있다.

水利化 實績을 보면, 韓國의 경우 生産基盤 整備의 一環으로 耕地整理와 더불어 農業用水 開發, 配水 改善事業 등을 持續的으로 推進함으로써 1990年末 現在 水利畓 面積은 98.5萬 町步로 水利畓率이 73%에 이른다. 水利施設은 貯水池 18,000餘個, 양수장 및 배수장 6,000餘個를 갖추고 있으며 이밖에 洑, 管井 등의 水利施設 34,000餘個가 分布되어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의 水利施設은 1990年 現在 貯水池 1,700餘個, 양수장 25,000餘個 및 灌漑水路 約 40,000km가 設置되어 있고 灌漑面積은 140萬 町步로서 總耕地面積의 65%水準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은 年度中 用水不足難 解決과 旱害克服을 위하여 灌漑水利施設에 注力함으로써 재령강－장수호간 水路工事, 35km區間 서해갑문 2段階 水路工事가 完工되었으며, 平壤市 農業用水 供給을 위한 상원－은구, 역포區域 함촌, 중화군 동산水路工事, 남강－미루벌水路工事 등 總800km에 이르는 工事를 完了하였다.

또한 育種理論 및 技術面에서 韓國은 이미 국제수준에 달하여

統一, 유신, 수원벼 계통의 多收穫品種 開發에 成功, 栽培가 一般化 된지 오래이다. 이에 비해 北韓의 育種理論 및 技術分野는 아직까지도 韓國보다 상당히 뒤떨어진 水準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北韓은 '80年代부터 뒤늦게나마 필리핀所在 國際米作研究所, 태국農業試驗場, 이태리 등지에 專門家와 視察團을 파견하는 등 新品種 入手 및 早熟多收穫品種의 開發에 努力을 集中하고 있다. 『선봉 9호』, 『平壤 8. 15號』 등과 같은 早熟多收穫 벼品種의 開發은 그 成果이다. 그러나 이들 開發品種들의 普及에 있어서는 北韓地域의 氣象變動이 심하고 地形地勢 또한 多樣하기 때문에 病蟲害, 倒伏現象 등 여러가지 問題點이 發生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農業 生產基盤을 綜合的으로 評價해 보면, 韓國은 논 面積이 北韓보다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水稻作 中心의 農業을 營爲하고 있으나. 北韓은 밭이 韓國보다 約 1.8배이상 넓게 차지하여 옥수수를 주종으로 하는 밭農事 위주의 農業을 營爲하고 있다.

또한 韓國은 產業發展과 더불어 農業生產性의 向上과 經濟性에 立脚하여 農業이 成長·發展되고 있다고 한다면, 北韓은 주로 耕地面積 擴大와 勞動力의 投入에 依存하여 不足한 食糧生產의 絶代規模를 增大시키려 하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北韓은 耕地面積의 增加率보다는 勞動力의 增加速度가

더 커짐으로써 農家戶當 耕地面積이 점차 좁아지는 趨勢에 있는데다가 物質的誘因(Material Incentive)이 없는 集團營農으로 말미암아 生産性 또한 低下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韓國은 霜降日數, 氣溫 및 降雨量 등 自然條件面에서 北韓보다 유리한 農業 與件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人口 1人當 耕地面積이 北韓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耕地整理 水準, 水稻作 中心 등에서 오는 機械化 營農上의 불리점도 안고 있다.

〈表 4〉 主要 農業關聯 指標

(1990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耕地面積	만정보	210.9	214.1
農家人口	만 명	646	821
戶當耕地面積[1]	정 보	1.21	1.15
農家人口/總人口[2]	%	15.1	37.8
단보당 쌀生産量	kg	451	306

資料 : 韓國은 農林水産部, 北韓은 統一院

註 : 1) 耕地面積/農家戶數

2) 여기서 總人口란 南北韓 各地域의 總人口를 말함.

다. 食糧作物의 生産

1990年 韓國의 食糧作物 生産量은 栽培面積의 減少와 日照量의 不足, 集中豪雨 등 氣象與件의 불순으로 말미암아 前年度 보다 52.5만톤이 줄어든 663.5만톤을 記錄하였다. 그중 쌀 生産量은 豐作을 이루었던 前年에 비해 5%減少된 560.6만톤을 記錄하였으나 平年作은 超過하였다. 특히 '90年度에는 消費者들의 양질미 選好傾向에 따라 일반계의 植付面積이 前年對比 2.9%가 增加한 반면, 통일계는 24.2%가 減少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食糧作物의 植付面積은 '80年代 以後 減少되어 왔으나 持續的인 農土培養, 品種改良, 營農機械化, 技術發展 등으로 單位面積當 生産量이 增加됨으로써 生産量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중 北韓 역시 불순한 기상조건으로 말미암아 食糧作物 生産量이 減少함으로써 또다시 흉작을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北韓의 食糧作物 生産量은 前年보다 12%가 減少된 總 481.2만톤(精穀基準)으로써 그 중 北韓의 主穀인 옥수수 生産量은 前年度 보다 30.1만톤이 減少된 238만톤, 쌀은 22.7만톤이 감소된 193.2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북한은 食糧生産 實績을 국제적으로는 전혀 通用되지 않는 粗穀槪念인 『알곡』을 基準으로 과장하여 발표하고 있을 뿐아니라 그나마도 구체적인 統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穀種別 播種面積이나 生産量 등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

움이 있다.

北韓은 알곡生産 실적에 대해 解放 직후인 1946年에 200만톤이었던 것이 1947~1949年間에는 藷類를 제외하고 230여만톤의 平年作 수준을 유지하다가, 農業 協同化 과정에서 生産量이 점차 增加되어 1961年에는 490여만톤, 1963年에는 500만톤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비약적인 증산이 이루어진 것처럼 발표하였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소위 『主體農法』을 관철하고 寒冷前線의 影響을 극복하여 정보당 알곡生産이 1974年에 논벼 5.9톤, 옥수수 5톤, 1979年에는 논벼 7.2톤, 옥수수 6.3톤으로 정보당 수확고가 世界的 水準에 달하였다고 宣傳하는가 하면, 第2次 7個年計劃이 종료된 1984年度에는 알곡 생산량이 목표치인 1,000만톤을 달성하였다고 누차 강조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이후에는 北韓은 지금까지 農業 實績에 관하여 具體的인 언급을 기피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北韓에서 발표하는 食糧 統計는 『粗穀 槪念』이라는 점 이외에도 중앙당국이 計劃目標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가장 收穫이 많은 협동농장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統計를 作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발표치와 실제 生産量間에는 엄청난 오차가 發生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이 통상 발표하는 食糧統計를 精穀 槪念의 食糧統計로 바꾸기 위해서는 立苗減耗率, 搗精率, 統計値와 實生産量間의 오차 등을 감안하여 推定하는 수 밖에 없다. 또한 여기에는 北韓의 耕地面積, 植付體系, 病蟲害 및 自然災害 등 自然條件과

육종 및 營農技術 水準, 施肥體系 등이 綜合的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表 5〉 南北韓 食糧作物 生産量

(單位 : 精穀基準 千 M/T)

區分 / 年度	韓國		北韓	
	總計	그중 쌀	總計	그중 옥수수
1986	6,774	5,607	4,825	2,371
1987	6,688	5,493	4,952	2,409
1988	7,299	6,053	5,210	2,503
1989	7,160	5,898	5,482	2,159
1990	6,635	5,606	4,812	2,380

資料 : 韓國은 農林水産部, 北韓은 統一院

라. 畜産業 實態

經濟成長과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른 食生活의 향상을 위해 畜産業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韓國은 酪農業의 부흥을 위하여 '60年代부터 飼料供給 뿐 아니라 經營組織 전체를 합리적으로 運營토록 지도하고 특히 無畜農家의 유축화를 위한 入殖, 우량품종의 도입과 자금지원, 流通改善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推進하는 한편 畜産團地 조성에 주력함으

로써 기업적 畜産農家가 확대되었다.

한편 北韓의 畜産은 國營畜産, 共同畜産(協同農場) 및 農民들의 副業畜産 등의 形態로 구성되어 있는데, '70年代 이후 畜産業의 발전을 위하여 協同農場과 社勞靑員들에게 일정 수의 家畜을 責任飼育케 하는 등 飼育家畜頭數 증대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基本的으로 食糧의 不足, 家畜飼料 輸入의 어려움 때문에 北韓 畜産業의 自立的인 발전은 그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와같이 南北韓 畜産業의 實態에 대한 근본적 차이는 다른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조적인 제도상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를테면 韓國은 개인의 직접적인 所得增大를 위하여 각 개인의 의욕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노력하는데 반해, 北韓은 畜産의 生産構造가 集團化되어 있어 生産意慾이 상대적으로 낮다.

마. 水産業 實態

韓半島는 地理的으로 3面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水産資源 또한 豐富하여 水産部門의 발전에는 매우 좋은 自然的 條件을 갖추고 있다.

분단이후 韓國은 이와 같이 좋은 與件을 기초로 하여 漁民의 所得增大, 수산물의 輸出增大 및 지속적인 生産增大를 위한 기반조성에 政策의 중점을 두고 水産資源의 造成 및 번식 보호를 비롯한 漁業 基本施設의 확충, 淺海 養殖事業 및 內水面 漁業開發,

遠洋漁業 신장 등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水產物의 내수충족은 물론이거니와 그 상당량을 輸出하고 있다.

北韓도 水產業을 食生活에서 중요한 단백질 供給源으로 보고 生產增大를 도모하여 왔다. 北韓은 第2次 7個年計劃(1978~84年)에서 350만톤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이른바 『'80年代 10大 展望目標』에서는 水產物의 生產 目標를 500만톤으로 설정하였다가 다시 第3次 7個年計劃(1987~93年)에서 生產 目標를 1,100만톤으로 대폭 늘려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이 水產物 生產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外貨不足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北韓의 水產物은 지금까지 주요 輸出品目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外貨獲得源이 되어 왔는데 이를 통해 심각한 外貨不足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겠다는 政策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北韓의 生產制度, 漁業基盤, 漁業構造 등의 劃期的인 改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水產物 生產量에 있어서는 1990年에 韓國은 327만 5천톤으로 평년 水準을 유지하였다. 期間중 고등어, 정어리의 漁獲量이 줄어드는 등 沿近海 漁業·遠洋漁業의 실적이 다소부진하였으나 內水面 漁業의 生產量은 3.4만톤으로 前年對比 12.6%增加하였다.

北韓의 최근 水產政策은 養殖漁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第3次 7個年計劃의 水產物 生產目標는 第2次 7個年計劃 目標 350만톤 보다 무려 3배가 증가된 1,100만톤

이었다.

그러나 北韓은 최근 西海岸 干拓事業에 따른 養殖場, 漁場의 감소추세와 명태, 오징어, 정어리 등 主要 魚族資源의 감소 등 水產部門 生產與件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造船實積의 부진으로 인한 어선부족, 漁撈裝備 및 漁撈技術의 落後, 船舶用 油類不足 등의 이유로 水產物 生產量이 급격히 감소되는 趨勢에 있다.

이에 따라 기간중 北韓의 水產物 生產量은 145.5만톤으로 前年度 實績 161.2만톤 보다 10%減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生產量 減少에도 불구하고 水產物은 北韓의 主要 輸出商品의 하나이므로 高級魚種은 거의 전량 輸出하고 있을 뿐 아니라, 加工 및 貯藏施設 등의 不足으로 住民들에 대한 水產物 供給은 金日成·金正日 生日 등 특별한 경우외에는 事實上 不可能한 실정이다.

4. 鑛工業

가. 鑛工業 資源 및 에너지

北韓은 地下資源의 埋藏과 分布에 있어서 韓國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즉 망간 등 몇가지 鑛物을 제외한 대부분의 鑛物資源들이 대부

분 北韓지역에 편재되어 있으며, 특히 鐵鑛, 石炭, 亞鉛 등은 90%이상,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100% 北韓에 집중 賦存되어 있다.

北韓地域에는 지금까지 約 360餘種의 鑛物賦存이 確認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經濟性이 있는 有用鑛物도 220餘種에 이르고 있다. 그중 마그네사이트는 全世界에서 埋藏量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0위 이내에 드는 鑛物도 重石, 몰리브덴, 黑鉛, 重晶石, 螢石 등 7種이나 된다. 이처럼 北韓지역에는 金屬鑛物과 에너지 鑛物이 豐富하게 부존되어 있으므로 北韓은 工業原料 및 燃料의 상당량을 자급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지역에도 현대 化學工業과 에너지의 主軸이라 할 수 있는 석유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石炭도 無煙炭, 有煙炭은 풍부하게 埋藏되어 있는 반면, 製鐵·製鋼工業의 주연료인 코크스炭의 埋藏量은 매우 적어 대부분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韓國과 北韓의 주요 鑛物 埋藏量을 비교해 보면, 石炭은 韓國이 16억톤인데 비해 北韓은 120억톤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풍부한 水資源과 더불어 北韓 에너지 공급의 주요 源泉이 되고 있다.

鐵鑛石은 韓國의 매장량이 1.2억톤인데 비해 北韓은 約 30억톤으로서 韓國과는 比較도 안 될 정도로 많이 埋藏되어 있고, 마그네사이트는 韓國에서는 전혀 生産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65억톤가량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鑛物資源에 있어서도 망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鑛物

資源은 埋藏量이나 生産量에 있어서 北韓이 훨씬 우세한 立場에 있다. 게다가 생산되는 原鑛의 품위 또한 北韓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生産性에 있어서는 南北韓이 공히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韓國은 개발 광산의 深部化로 말미암아 品位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經濟性도 계속 저하되어 銀塊를 제외하고는 매년 生産性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計劃과 통제에서 오는 수직적 제도의 硬直性에 주로 연유하여 生産性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고품위의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鑛種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韓國보다는 다소 生産性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工業化의 原動力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開發과 生産을 보면, 韓國은 1990년에 前年對比 17.2%감소된 1,721만 7천톤의 石炭을 生産하였다.

北韓은 炭鑛開發의 부진 등의 이유로 前年度 水準인 4,330만톤의 生産能力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름철 폭우로 인한 일부 炭鑛의 浸水와 投資不足 및 採掘條件의 惡化등으로 生産量이 3,300만톤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제철, 제강용 原料로 사용되는 역청탄은 南北韓 모두 생산이 전무하여 이를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특히 韓國에서는 無煙炭의 절대적인 物量不足과 함께 産業用 有煙炭마저 전혀 生

産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石炭의 輸入 依存度가 매우 높다.

精油施設은 韓國이 현재 日産 84만배럴의 生産能力을 보유하고 1일 平均 50萬배럴 이상의 原油를 精製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소련 및 중국의 원조로 건설된 『승리화학』과 『봉화화학』의 두 精油 工場에서 도합 日産 7만배럴의 精油能力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89年以後 外貨사정이 惡化되고 中·蘇의 硬貨決濟 요구로 인한 原油導入의 부진 등의 理由로 에너지난이 가중되고 있다.

期間中 北韓의 原油 도입량은 總 252萬톤으로 精油能力에 비해 연간 約 100萬톤이 부족한 실정이며, 主要國別 輸入實績은 中國 110만톤, 蘇聯 44만톤, 이란 98만톤으로 추정된다.

오랜기간 동안 北韓이 韓國보다 우위를 유지하여 왔던 電力도 1972년을 기해 남북한의 위치가 反轉되었으며, 現在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韓國이 상당한 격차를 두고 앞서고 있다.

1990년 현재 韓國의 發電設備 容量은 2,102萬 1千kw로 전년에 비해 약간 증대되었으며, 北韓도 역시 위원水力發電所 및 예성강 5號 發電所가 完工됨으로써 發電設備容量이 1989年의 690萬km에서 1990年度는 714萬kw로 다소 증가하였다.

年間 發電量에 있어서는 韓國이 전년보다 14%증가한 1,076.7억kwh를 生産하였는데 비해 北韓은 石炭生産 부진으로 인한 火力發電所의 稼動率 저하, 渴水期의 水力發電 부진으로 電力生産量은 '89년의 293.7億kwh보다 오히려 5.5% 감소한 277.4億kwh

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電力供給構造를 보면 韓國은 原子力發電所의 증설과 함께 有煙炭과 가스燃燒用 發電所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작금의 노력으로 공급구조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석유연소용 火力發電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낙차가 크고 수량이 풍부한 압록강과 두만강 수계를 원천으로 하여 값싼 電力을 생산하고 있는 水力發電이 전체 生産電力의 약 1/2정도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火力發電은 응기發電所를 제외하고는 모두 石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表 8〉 主要 에너지 現況

(1990年 現在)

區分	單位	韓國	北韓
發電設備容量	萬kw	2,102	714
(水力)	(〃)	(234.0)	(429.0)
(火力)	(〃)	(1,106.5)	(285.0)
(原子力)	(〃)	(762.0)	(—)
發電量	億kwh	1,077	277
精油能力	萬배럴/日	84	7
原油導入量	萬톤	4,264	252
石炭生産量	萬톤	1,722	3,315

資料 : 韓國은 韓國電力公社, 北韓은 統一院

南北韓의 에너지 供給構造를 살펴보면, 韓國은 石炭 및 石油類에 80%이상 依存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 에너지의 주원천은 石炭으로서 總 에너지 공급량 가운데 70%를 占하고 있다.

즉 韓國은 상당량의 石炭과 全量의 原油를 海外로부터 輸入하고 있어서 에너지의 海外 依存度가 높으며 따라서 國際 市場에서의 이들 資源의 가격 및 供給 動向에 따라 影響을 많이 받게 되는 構造的 脆弱性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韓國은 經濟規模의 신장과 더불어 急增하는 에너지 需要를 安定的으로 充足시키기 위하여 안으로는 汎 國民的인 에너지消費 節約運動과 함께 에너지 이용의 效率化를 꾀하고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대체 에너지의 技術開發에 主力하는 한편, 밖으로는 石油 공급량의 安定的 확보를 위해 原油 도입선의 多邊化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오고 있다.

또한 資源 보유국의 資源 보호주의 강화로 말미암은 資源難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자원의 개발·공급 및 해외자원의 開發·輸入에도 적극적으로 投資하고 잇다.

이에 비해 北韓은 에너지의 輸入 依存度가 相對的으로 낮으며 따라서 에너지의 供給 및 生產費用 모두가 韓國에 비해서는 安定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은 이와 같은 에너지 部門의 유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각한 에너지 不足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바, 중소형 發電所의 건설 등으로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埋藏量이 풍부한 石炭의 수급에 있어서 북한은 1977年 이래 원유도입이 부진하자 일부 石油 사용처를 石炭으로 대체함으로써 石炭의 需要가 급증하고 있으나 生産은 기존 炭鑛들의 採炭條件 惡化, 採炭 장비 낙후 등의 요인과 劃一的인 管理·運營上의 문제에 기인하여 늘어나는 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電力에 있어서도 北韓은 水力發電 設備의 노후로 인해 고장이 빈번하고 年中 11月 중순부터 다음해 3月末까지의 갈수기와 결빙기에 稼動率이 低下되고 있어 電力 需要가 많은 계절인 겨울에는 安定的인 電力의 供給이 어렵다는 問題點을 안고 있다.

北韓의 에너지不足 문제는 總 에너지 供給 비중 가운데 薪炭이 8%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北韓經濟는 生産單位當 에너지消費 需要가 韓國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도 北韓의 에너지 부족난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構造的 原因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의 만성적인 성장둔화 요인 중 하나는 經濟構造의 파행성, 산업시설 구조의 악화, 기술 수준의 낙후 등에서 오는 에너지의 낭비와 공급부족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석탄을 위주로 한 에너지 생산의 증대와 소비 절약 운동만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나. 重化學工業

1) 鐵鋼 및 非鐵金屬 工業

鐵鋼工業은 그 生産과 消費量이 한 나라의 國力과 工業化 水準을 評價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정도로 중요한 産業部門이다. 重化學工業 部門에서 鐵鋼이 기초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産業이 高度化될 수록 鐵鋼의 수요는 많아지게 마련이다.

分斷以後 北韓이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과 마찬가지로 重工業優先 政策을 지속적으로 推進한 결과, 1970年代 初까지만 하더라도 鐵鋼生産 施設能力은 韓國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1973년 浦項製鐵 第2高爐 稼動을 계기로 하여 南北韓의 위상이 바뀌어졌으며 그 이후 南北韓의 철강 生産能力은 韓國이 앞선 가운데 격차가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다.

1990년 기간중 韓國은 건설,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을 비롯, 鐵鋼需要 産業部門의 生産이 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鐵鋼材 消費量도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對內外的 與件變化의 影響으로 韓國의 鐵鋼工業은 생산 및 投資에 있어서 호조를 나타내었다.

한국에서는 이미 1987년 5월 年産 270만톤 規模의 光陽製鐵所 第1基가 完工, 期間中에 완전 가동되었으며 1988年 7月에는 年産 270만톤규모의 光陽製鐵所 第2基가 完工되어 操業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늘어나는 鐵鋼需要에 대비, 鐵鋼材의 원활한 供

給을 위해 동일규모의 第3基가 建設에 착수되어 '90년 12월에 준공되었다. 이에 따라 鐵鋼 生産量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條鋼 生産 기준으로 전년대비 5.7%의 增加率을 나타내었다.

期間中 北韓은 鐵鋼工業 部門에서 增産·節約鬪爭을 위한 旣存 施設의 生産 正常化 努力과 함께 鐵鋼 生産能力 200만톤 規模의 『10月 9日 鋼鐵綜合工場』建設을 推進하였지만 아직 基礎工事 段階로서 鐵鋼 生産能力은 前年度의 水準을 유지하였다.

1990年 現在 韓國의 製鋼能力은 2,540만 6천톤에 달하고 있으나, 北韓은 594만톤 水準으로 韓國의 製鋼能力은 北韓에 비해 4배 이상이다. 銑鐵 生産能力은 韓國이 1,797만 7천톤인데 비해 北韓은 517만톤이고 壓延鋼材 生産能力은 韓國이 3,283만 6천톤, 北韓이 404만톤으로 무려 8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鐵鑛石 수급면에서는 北韓의 경우 대부분 自體生産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韓國은 鐵鑛石을 비롯하여 古鐵 등 거의 대부분의 원료를 海外로부터 輸入하고 있어 鐵鋼工業 原料의 海外依存度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는 韓國의 1990年度 鐵鑛石 生産量이 정광기준으로 29만 8천톤에 불과한데 비해 北韓은 1,030만톤이나 生産하였다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製鐵, 製鋼技術 및 생산 시스템을 비교하여 보면, 韓國은 浦項製鐵을 비롯하여 대규모 製鐵 製鋼生産 企業들이 最新設備를 보유하고 技術發展을 持續的으로 推進해 나옴으로써, 世界 第7位의 철강대국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先進國 水準으로 부상하였으

나, 北韓은 解放以前에 建設된 기간설비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보수와 개축만을 추진해 온 결과 現在의 施設로는 범용 강철을 제외한 고급제품 생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非鐵金屬工業의 생산능력을 보면, 1990년 現在 北韓은 자체의 原料를 가지고 鉛 8.8만톤, 亞鉛 29.5만톤, 銅 9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施設能力을 갖추고 있으며 알루미늄은 蘇聯으로부터 技術 및 施設을 지원 받아 1985년 이래 年産 2만톤 能力의 북창 알루미늄 工場을 建設, 操業하고 있다.

韓國은 1970年代 後半 重化學工場 建設이 本格的으로 推進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非鐵金屬의 需要에 대처하기 위하여 慶尙南道 온산지역에 大規模의 非鐵金屬 단지를 造成, 發展시켜 오고 있는데, 1990年度 현재 鉛 13.0만톤, 亞鉛 26.5만톤, 銅 22.5만톤, 알루미늄 1.7만톤의 生産能力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의 非鐵金屬 부문의 生産能力에 있어서는 그 우열이 서로 교차하고 있으나 각각의 經濟規模와 産業構造를 勘案하여 보면 北韓의 施設能力이 韓國보다는 相對的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軍需産業을 위주로 하여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發展시키겠다는 北韓의 지속적인 정책기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表 10〉 鐵鋼 및 非鐵金屬 生産能力

(1990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製 銑	萬 톤	1,797.7	517
製 鋼	萬 톤	2,540.6	574
壓 延 鋼 材	萬 톤	3,283.6	404
鉛	萬 톤	13.0	8.8
亞 鉛	萬 톤	26.5	29.5
銅	萬 톤	22.5	9.0
알 루 미 늄	萬 톤	1.7	2.0

資料：韓國은 商工部, 北韓은 統一院

2) 機械工業

機械工業은 북한이 일찍부터 軍需産業 중심의 重工業 優先 정책에 따라 가장 力點을 두고 개발해 온 部門이다. 그러나 이 部門에 있어서도 1970년 이후 한국의 重化學 工業의 중점적인 개발과 급속한 발전으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自動車, 船舶 등 운송용 기계와 방직기계, 電氣機器등 전자통신 장비, 정밀기계 등에서 한국은 先進國 水準에 돌입함으로써 북한과는 비교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기계공업 발전이 경제적 合理性을 무시한 채 軍需産業의 개발을 위해 연관산업인 工作機械工業을 重點的으로 육성하고 政治的 目的에 따라 수요가 적은 大型機械들까지도 自體生産을 고집하는 등 對內指向的 戰略을 구사하여 온 데 비해, 한국은 對外指向的 경제발전 모형에 입각하여 先進國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도모하고 市場需要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機械工業 육성을 추진하여 온데 기인하는 것이다.

1990년 현재 주요 機械製品의 생산능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특히 최근 한국의 自動車 공업은 生産·技術·輸出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産業構造上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工業部門이 되고 있다. 1990년의 生産能力은 小型乘用車로부터 버스·트럭 등에 이르기까지 총 190만 2천대에 달함으로써 전

년보다 대폭 증가되었으며, 多種多樣한 차종으로 所得增加와 더불어 늘어나는 國內 需要의 充足은 물론이거니와 수출실적도 增加趨勢에 있다.

〈表 11〉 主要機械製品 生産能力

(1990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自動車	萬 臺	190.2	3.3
造船	萬톤(G/T)	342.2	21.4
工作機械	萬 臺	26.3	3.5

資料 : 韓國은 商工部, 北韓은 統一院

북한은 1958년부터 트럭을 生産하기 시작하였으나, 지금까지 소련·동구의 제품을 모방한 화물자동차 생산에 치중하여 왔기 때문에 여객수송용 버스나 승용차의 생산은 주요 부품을 輸入·組立하는 단계로서 생산시설이나 技術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요 자동차 공장으로는 북한 유일의 綜合自動車工場인 평안남도 덕천의 勝利自動車工場을 비롯하여 淸津 버스공장, 平壤 여객자동차공장 등 일부 組立工場이 있으며, 1989년 8월 勝利自動車工場의 生産能力이 확장됨으로써 貨物自動車를 主軸으로 하는 북한의 年間 自動車 生産能力은 3만 3천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는 西海岸의 南浦造船所, 동해안의 淸津造船所를 비롯하여 10여개의 크고 작은 造船所·船舶修理工場이 산재해 있으며,

이들 조선소에서는 船舶의 修理·整備와 함께 3,750톤級의 선미트롤漁船에서 2만톤級의 貨物船에 이르기까지 어선, 냉장운반선, 여객선, 貨物船등의 연간 건조능력이 21만 4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造船所 施設이 매우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造船技術 수준도 낮은 것으로 評價되며, 북한의 最大船 건조실적은 2만톤級으로서 한국의 28만톤級 건조실적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각종선반, 터닝반 등 연간 26.3만대의 工作機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범용공작기계에 비해 高度의 尖端技術이 집약된 C.N.C工作機械 등 N.C工作機械類의 수출비중이 점차 높아짐으로써 工作機械의 輸出品目이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趨勢이다.

북한은 工作機械工業을 發展시키기 위하여 '88년 11월 黨第6期第14次 全員會議에서 工作機械工業과 電子自動化工業 發展의 基本方向과 과업을 제시한 이래 大型旋盤과 N.C工作機械 및 各種 工作機械 제작에 주력해 왔으나, 여전히 범용공작기계류의 生産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量的生産增大와 단순기능을 가진 大型製品 生産에 집중한 결과 제품의 精密度 등 品質上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북한의 工作機械類 年間 생산능력은 3.5만대 水準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컴퓨터 산업이 그 동안에 축적된 科學技術을 바탕으로 急速度의 成長勢를 보임으로써 각종의 産業用·事務用 機械 및 機器가 最新型의 자동화 기종으로 개발·

보급되어 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까지 蓄積된 技術이 빈약하여 컴퓨터 産業이 극히 初步的인 段階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3) 化學工業 및 建材工業

化學工業은 高度의 기술과 情報를 活用, 比較的 小規模의 시설로 고부가가치의 제품생산이 가능한 産業部門으로서 각종의 石油化學 제품을 비롯 醫藥, 農藥, 化粧品, 染料, 塗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基礎 科學·技術의 확보와 더불어 高度의 技術開發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해방 초기만 하더라도 북한의 화학공업은 金屬 및 機械工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비해 우위에 있었다.

즉, 解放 당시 북한에는 年産 48만톤 規模의 興南肥料工場을 비롯하여 중요한 化學工場들이 있었으나, 한국은 1950년대까지 化學肥料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韓國은 1959년 忠州肥料工場의 건설로 化學肥料 自給의 基盤을 構築하기 시작하였고 1977년 第7肥料工場까지 건설, 가동되는 등 적극적인 施設投資가 이루어졌으며 이에따라 오늘날에는 對內需要의 充足은 물론 해외에 상당량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 現在 南北韓의 化學肥料 生産能力은 實量 基準으로 한국은 403만2천톤, 北韓은 351만4천톤으로 약 50만톤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性分, 含量 基準으로는 약 2배의 生産能力 隔差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이는 韓國에서는 고성분의 複合肥料 생산을 中心으로 하여 土壤 및 농작물 생육에 알맞는 多種多樣한 化學肥料가 開發·普及되고 있는 반면, 北韓에서는 성분 含量이 낮은 유안비료, 인비료등 단일성분의 肥料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연유한다.

南北韓의 주요 합성수지 생산능력을 보면, 韓國은 건설분야의 활황, 自動車産業·電子産業의 회복세, 農業用 필름 需要의 증가등 국내수요의 신장과 輸出增大에 힘입어 전년대비 21.8%의 增加率을 보였다. 즉 1990년 현재 한국의 합성수지 생산능력은 LDPE, HDPE, PP, PVC, PS/ABS등 5대 범용수지를 中心으로 연간 400만톤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化學工業의 발달을 위한 科學·技術的 基盤이 허약하여 지금까지도 合成樹脂의 生産能力은 年産 15만톤에 불과하며, 生産製品의 종류와 品質面에서도 단조롭고 저급한 실정이다.

建築資材用 판유리의 경우에도 韓國의 판유리 製造技術은 이미 先進國 水準으로서 1990년 현재 年産 1,500만 상자의 生産能力을 보유, 늘어나는 건재 소요에 따라 전년보다 22.4%로 대폭 擴張되는 신장세를 보였는데 비해 北韓은 전년도와 비슷한 300만 상자의 生産能力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는 바, 이는 북한이 아직까지 판유리 수요의 相當量을 海外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한 모두 충분한 資源을 가지고 있는 시멘트는 1990年 現在 韓國이 4,210.4만톤의 生産能力을 보유하고 國內建設과 해외건설 現場에 供給하고 있다. 북한 역시 年間 1,202만톤의 生産能力을 가지고 자체 需要를 충당하고 있으며, 生産量의 일부는 해외로 輸出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産業用 耐火物의 生産原料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그네샤 크링카의 생산능력은 마그네사이트가 北韓地域에 다량으로 부존되어 있어 韓國보다 월등한 位置를 점하고 있다. 北韓은 1990년 현재 300만톤의 生産能力을 보유, 自體 需要의 충당은 물론 상당량을 輸出하고 있다.

이밖에 醫藥品 및 화장품, 합성고무, 化學纖維 등의 화학제품과 기타 건설자재의 生産供給 능력에 있어서 북한은 그 開發水準이 韓國보다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이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確認되고 있다.

〈表 12〉 主要 化學·建材工業 生産能力

(1990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化學肥料	萬 톤	403.2	351.4
化學纖維	萬 톤	129	17.7
主要合成樹脂	萬 톤	400	15
판 유 리	萬상자	1,500	300
시 멘 트	萬 톤	4,210.4	1,202
마그네사이트	萬 톤	5	300

資料 : 韓國은 商工部, 農藥工業協會, 北韓은 統一院

다. 輕工業部門 및 消費財 工業

輕工業은 大部分의 製品이 國民들의 日常生活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 生活必需品, 즉 소비품을 生産하는 중요한 部門이다. 그러한 만큼 資本主義 市場經濟下에서 輕工業 製品의 생산은 소비자의 기호와 消費需要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資本主義 經濟에서는 生産業者들이 消費者의 다양한 기호를 중요시 하여 生産·供給하게 되며, 정부 당국도 輕工業 부문에 대해 厚生·福祉의 차원에서 政策的인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수요와 供給이 中央 計劃當局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判斷·選擇·決定되는 일종의 供給獨占 경제의 性格을

띠고 있는 만큼, 제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欲求가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소비활동은 必然的으로 개인의 기호와는 무관하게 中央當局의 일방적인 供給計劃에 따라 좌우되므로 資本主義 市場經濟에서처럼 특정 財貨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한국은 당초부터 輕工業 發展을 토대로 하여 공업의 고도화를 꾀하는 成長戰略을 추진하여 온 결과 輕工業의 기반이 튼튼하다. 최근에는 科學·技術이 發達되고 있는데 힘입어 輕工業 제품이 현대화·고급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급 면에서도 대내수요의 充足은 물론이거니와 生産製品의 國際競爭力 強化로 輸出量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다른 社會主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을 앞세워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 優先 政策에만 몰두하여 왔다. 다시말해 북한은 輕工業部門에 대해서는 극도로 투자를 抑制시키는 불균형 成長戰略으로 일관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輕工業部門이 한국에 비해 크게 落後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輕工業部門의 낙후는 生活必需品의 供給不足 現象을 持續시킴으로써 산업전반에 걸쳐 勞動意慾과 生産性을 저하시키는 主要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와서부터 북한은 경공업 部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합영법』발표와 때를 같이 하여

1984년 이후 이른바 『8.3 人民 消費品』 生産 運動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경공업 혁명』, 『인민 봉사 혁명』등의 구호 아래 경공업 製品의 增産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정무원의 組織 가운데 『화학 및 경공업 위원회』를 『輕工業 委員會』와 『化學工業部』로 分離·改編('88. 6. 2)하는 등 輕工業 部門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은 從來보다 크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輕工業 部門에 대한 신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8.3人民 消費品』의 增産에만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어서 뚜렷한 成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8.3인민 소비품』이란 북한 전지역의 工場·企業所에 生必品 職場 및 가내 작업반을 설치하도록 하고 當該工場 및 기업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설물을 이용하여 生産하는 주민 소비품을 총 망라하여 지칭한다.)

따라서 1990년 현재 南北韓의 輕工業部門 격차는 생산면에서나 품질면에서나 모두 深化되어 있다. 家電製品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국은 당초 輸入 對替産業 부문의 하나로 開發·育成하기 시작하였으나 勞動集約的이면서도 동시에 技術集約的이라는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輸出 主種産業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까지도 生産規模나 技術水準이 매우 낙후하고 대내 需要에 대한 供給이 부족한 형편이다.

한국은 年間 1,450만대에 달하는 TV수상기 生産能力을 보유하고 있으며, 냉장고는 年間 47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전기, 전자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 家電

製品들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질적 수준 역시 국제적 水準으로 크게 신장되어 이제는 世界市場에서 先進諸國의 생산품과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1979년에야 비로소 흑백 TV를 年間 10만대 정도 生産할 수 있는 TV수상기 工場을 완공하였으며 여타의 TV조립공장의 施設能力까지 합해도 年間 24만대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칼라 TV는 部品을 전량 수입하여 組立하고 있는 실정이고 냉장고 역시 단순한 기능을 가진 모델들이 生産되고 있을 뿐이다.

그밖의 輕工業 製品 내지 각종 소비재들에 있어서도 北韓의 生産能力이나 技術水準이 크게 뒤떨어져 南北韓의 생산 격차가 深化되어 있다.

南北韓의 주요 輕工業製品 생산 施設能力을 비교해 보면 〈表 13〉과 같다.

〈表 13〉 主要 輕工業製品 및 消費財 施設能力

(1990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TV 受像機	萬 臺	1,450	24
냉장고	萬 臺	470	12.6
섬유	萬 톤	180[1)]	17.7
직물	億 m	70	6.6

資料 : 韓國은 商工部, 北韓은 統一院

註1) 섬유(韓國)는 생산실적 기준

라. 技術水準

전반적인 技術水準에서 볼 때, 韓國은 개방체제에 의한 先進技術과 설비의 도입으로 급속한 技術進步가 이룩되었고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최첨단 産業이 토착기반을 구축, 발달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蓄積技術의 기반이 없으면서 自力更生의 원칙에 의한 자체의 技術開發에만 의존하는 閉鎖體制를 고수하여 왔기 때문에 技術水準이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北韓이 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重工業 우선정책에 따라 가장 力點을 두고 開發하여 온 기계공업 부문의 기술 水準만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韓國은 經濟規模의 신장과 더불어 基幹産業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류의 生産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사, 밸브, 베어링 등의 기계부품과 NC공작기계, 머시닝센터, 단조기, 프레스등 공작기계를 비롯하여 원동기, 섬유기계, 재봉기, 목공기계 등 각종 産業用 機械의 수출이 활발하다.

북한도 각종선반, 후라이스반, 각종 프레스등 공작기계·금속 절삭기계 및 광산기계, 기계부품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精密機械의 생산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落後되어 있다. 북한은 정밀기계기술 수준 제고를 위하여 80년대 이후 소련과 베아링, 공작기계등 정밀기계 공업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왔으나 아직도 規格化·精密度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둘째, 농업용 機械分野의 경우 한국에서는 동력 분무기, 動力耕

耘機 등 각종 農機械가 대부분 國産化되고 일관작업 촉진 段階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비해 北韓에서는 북한 最大規模의 농기계공장인 금성 트랙터 綜合工場 등에서 트랙터와 기타 연결 농기계등을 20여종 생산하고 있으나 生産·普及實績이 원활하지 못하여 農業分野에서 農機械를 별로 使用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셋째, 韓國은 輸送用 機械分野,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生産技術이 우수하며 성능면에서도 단연 北韓을 압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大型 工作機械와 채굴기계등 장비생산에서 약간 우위에 있다. 그러나 이들 장비에 사용되는 베아링, 점화기등 주요 부품은 外國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넷째, 전기·電子機械도 한국이 월등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北韓은 發電用 機械部門에서 다소 技術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에 비해 技術水準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다는 事實은 결코 우연만은 아니다. 북한의 技術水準 낙후에 대한 몇가지 원인을 지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技術이 개발, 廣範圍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社會的 要求(이를테면 시장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하여야 하는데 북한은 制度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經濟體制上 社會的 要求는 중앙 당국의 요구와 一致하게 되는데 이 요구가 北韓住民의 요구를 反映한다는 보장이 없다. 다만 北韓當局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술개발의 목표를 『절

대성』, 『無條件性』原則에 입각하여 달성하여야 한다는 강요만이 있을 뿐이다.

둘째, 경제적 기반이 열악하여 필요로 하는 技術開發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技術開發이란 어느 體制를 막론하고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開發途上國에서 技術水準의 향상이 遲延되고 있는 것도 대부분이 기술과 경제적 與件과의 관계를 조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연유한다.

셋째로 현대의 기술은 國際的 性格을 지니고 있는데, 北韓은 이러한 性格을 외면함으로써 기술수준이 낙후되는 結果가 되었다.

북한의 자력갱생을 앞세운 폐쇄체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技術移轉을 束縛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간의 交流·協力活動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技術關聯 情報를 도입하여 북한의 기술적 역량을 높이기 보다는 蘇聯 및 일부 東歐諸國의 기술지원과 對內의 자체적인 技術改善에 만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南北韓間의 기술격차를 擴大시킨 것이다.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北韓은 대외 교류·협력으로 통한 技術의 發展을 도모하고 있으며 아직 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그 귀추가 注目된다.

5. 輸送·通信

오늘날의 輸送手段은 鐵道를 비롯하여 高速道路, 海運, 航空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아직도 화물수송을 鐵道에 주로 依存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 海上運送은 철도운송과의 연계를 위한 補助的 役割에 머무르고 있다.

北韓은 험준한 지형지세와 에너지 및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만성적인 輸送隘路를 겪고 있으며, 지금까지 社會間接資本 건설을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輸送과 관련하여 북한이 當面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각지역에서 채취한 원료·자재를 효율적으로 輸送하는 문제와 철도에 지나치게 偏重된 輸送構造의 改善 및 觀光客 誘致를 위한 交通網 확충문제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現在 한국의 鐵道 총연장은 6,435km로서, 이중 電鐵化 구간은 524.5km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철도 총연장 5,045km중 63.3%인 3,194km가 電鐵化되어 있어 北韓의 電鐵化 비율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通信施設의 미비로 鐵道의 自動信號化 設備가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電力難으로 鐵道運送體系의 積滯現象을 보이고 있다.

年度中 鐵道建設 실적을 보면 도내－유평, 위연－삼지연(80km) 등 일부 구간의 電鐵化 공사를 推進하여 위연－못가간 전철화 공사를 完了하는 한편, 남동－온천(80km), 안변－금강산(97km), 청단－덕달(15km)간 철도부설을 推進하여 청단－덕달간 敷設工事

를 完了함으로써 철도 總延長은 전년에 비하여 약간의 신장율을 보였다.

道路輸送에 있어서는 한국은 1990年 현재 道路 總年長이 5만6천여km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551.5km가 高速道路로 되어 있어 명실공히 韓國 全地域은 1日 生活圈化 되었다. 또한 道路 鋪裝率은 71.5%로서 전년보다 크게 향상되었으며, 포장도로 연장은 1980年에 비해 2.6배 水準으로 증가되었다.

自動車 保有臺數는 자동차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國民의 所得水準 향상에 힘입어 전년보다 27.6%가 증가한 339만 5천대에 이르며 그중 자가용은 303만 8천여대로서 89.5%를 점하고 있다.

북한은 도로 총연장이 2만 3천여km로서 高速道路는 평양－원산간 17km, 평양－남포간 53km, 평양－순안간 15km, 원산－금강산간 114km등 총연장이 354km이며, 당초『平壤祝典』이전 완공을 目標로 하였던 평양－개성간 高速道路는 도로포장용 原資材 供給不足等의 理由로 1990년 期間中에도 완성하지 못하였고 평양－희천區間은 路盤工事가 完了되었다.

北韓에서 運行되고 있는 自動車는 貨物自動車와 버스를 中心으로 약 26만 4천대에 이르며, 이들 自動車는 平壤을 비롯한 대도시와 西北 平野地帶 일부에 集中되어 있다.

海運의 경우 한국은 대외무역의 擴大와 더불어 그 重要性이 날로 커짐에 따라 1990년 현재 港灣 荷役能力은 年間 22,435만톤이며 컨테이너선, 油槽船 등을 비롯한 外航船의 保有톤수는 905.

2만톤에 이르러 전년보다 9.3%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北韓은 종래 對外貿易에 消極的이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교역이 中國·蘇聯에 偏重되었으며 東西 海岸이 분리되어 있는 탓으로 海運部門이 극히 낙후되어 있다. 최근에 와서야 북한도 對外貿易強化 政策을 추구하면서 해운과 港灣施設을 정리, 補強하고 있다.

1990년 現在 北韓의 港灣 荷役能力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3,490만톤으로 평가되었으며 外航船 保有톤수는 54만톤 水準으로 알려져 있다.

韓國에서는 最近 經濟의 高度成長과 所得水準의 向上, 國際交流의 擴大등으로 항공수송의 비중과 그 중요성이 날로 커가고 있으며 국내 航空社들은 B-747-400항공기 등 86대의 航空機로 51路線, 21個國 32個都市에 就航하고 있다.

期間中 국내 旅客輸送은 1,106만명으로 前年對比 23.6%增加하였으며 航空機 貨物輸送의 경우 18.3만톤으로서 前年對比 18.4%의 增加率을 보였다. 또한 年度中 國際 航空 旅客輸送은 962.6만명으로 전년대비 16.2%의 증가율을, 國際 航空 貨物輸送의 경우 77.7만톤으로서 9.2%의 伸張率을 각각 나타내었다.

北韓은 國內線 航空機가 순안-선덕-청진 飛行場을 定期的으로 運航하고 있으며, 이 밖에 원산, 혜산, 삼지연, 순천, 과일등에 航空터미널이 설치되어 있으나, 순수한 民間旅行客이 國內線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북한은 IL-62, AN24機 등 주

로 蘇聯製 中·長距離用 航空機 10여대를 주축으로 國際線에 투입하여 4個路線 3個國 5個都市에 정기운항하고 있다.

한편 南北韓 수송 구조의 차이는 輸送施設 能力의 差異로부터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旅客輸送과 貨物輸送이 함께 發達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旅客輸送보다 貨物輸送에 치중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北韓의 여객수송이 發達하지 못하고 있음은 곧 北韓住民의 지역간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意味하며 이것은 北韓의 社會的移動性(Social Mobility)이 缺如되어 있다는 事實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貨物輸送의 경우 韓國은 균형적인 輸送構造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鐵道 偏重의 수송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은 1990年 현재 鐵道, 道路, 海運 및 航空輸送의 分擔率이 각각 30.9%, 21.1%, 47.8%, 0.2%를 나타내고 있으나 북한의 수송 분담율은 鐵道에 90% 가까이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反映한다.

더욱이 북한은 鐵道偏重의 輸送構造를 改善시켜 當面한 輸送隘路를 克服하기 보다는 철도의 電氣化·重量化 시책에만 주력하고 있어 앞으로도 북한의 不均衡的인 輸送構造가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通信은 단순한 의사전달의 매체로서만이 아니라 産業의 發展과 國際化의 촉진은 물론 國民生活向上에 기여하고 있으

며 다가오는 情報社會에 있어서 國家競爭力을 좌우할 核心分野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世界各國은 다가올 情報社會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1987년에 電話施設이 1천만 회선을 넘어섰고 全國 電話自動化 事業이 완성되었으며 1988년에는 1천만 加入者를 돌파함으로써 가입전화 施設規模가 세계 9위권의 先進國 水準에 到達하였다. 1990年에는 1,534만 회선에 100명당 가입자수가 31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각각 14.5%, 11.5%증가하였다.

北韓에서는 정보통신이 일반대중의 生活便宜를 위한 手段이라기 보다는 個人電話를 허용치 않는 등 주민을 통제하는 手段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말 현재 북한의 전화시설 규모는 40만회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平壤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일부 회선을 除外하고 大部分 手動交換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은 '84년에 共產圈 通信衛星機構인 『인터스푸트닉』에 가입하였으며, '86년에는 印度洋 인텔샛트 위성통신 地區局을 設置하고, 연도중에는 『日·朝 衛星通信回線 開設協定』을 체결하는 등 國際通信網의 擴張에 주력하였다.

1990년중 한국의 郵便物 接受量은 23억 6천만통에 달함으로써 산업의 고도화 및 國際化 趨勢에 맞추어 신장률이 매년 10%이상에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郵便物量의 증가는 경제·사회의 急速한 發展으로 말미암아 個人通信보다 企業通信이 활발해 지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北韓은 對內外 郵便物이 保衛部의 檢閱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住民들의 郵便交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表 14〉 輸送·通信 現況

(1990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鐵道總延長	km	6,435	5,045
(電鐵化 區間)	(km)	(524)	(3,194)
地下鐵	km	149.7	30.5
道路總延長	km	56,715	23,000
(高速道路)	(km)	(1,551.5)	(354)
自動車保有臺數	萬 臺	339.5	26.4
港灣荷役能力	萬톤	22,435	3,490
外航船保有	萬톤(G/T)	905.2	54
航空機保有	臺	179	18
國際航空路線	路線(都市)	51(32)	4(5)
郵便物接受量	百萬통	2,358.3	—
電話回線數	萬回線	1,534	40

資料 : 韓國은 交通部, 建設部, 遞信部, 北韓은 統一院

6. 對外去來

가. 貿易規模

韓國은 1960년대 초부터 국내자본의 부족을 외화로 충당하고 협소한 國內市場의 제약을 海外市場으로 보완하는 이른바 對外指向的 개발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와 같은 開發戰略의 推進은 빈약한 부존자원의 여건하에서 풍부한 勞動力을 생산 자원화하여 經濟發展을 꾀하기 위한 韓國經濟의 불가피한 選擇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의 成功的인 推進으로 貿易規模가 急速히 신장되었으며 이는 韓國經濟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原動力이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北韓은 『自力更生』의 기치 아래 폐쇄적인 아우타르키 體制를 維持해 왔기 때문에 대외거래에 대해서는 消極的일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北韓의 對外去來는 어디까지나 자급자족형 經濟에 종속된 하나의 보완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이었다.

북한의 對外貿易은 『國家管理』에 의한 계획무역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貿易部 산하의 國營商事와 合營貿易商事 등을 통해 對外貿易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 대상국에 있어서도 經濟를 政治目的과 결부시켜 '60년대에는 共產圈 諸國과의 貿易比重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었고, 『제 3 세계』로 일컬어지는 非同盟 國家들이 그 다음이었으며 西方圈 國家들과의 무역은 별로 중요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무역정책은 상당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北韓은 投資財源이 부족한 가운데 자체적 기술개발이 限界에 이르자 1971~76년의 6個年 經濟計劃 기간중 『技術革命』을 최고의 과업으로 내세웠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先進設備 및 技術의 도입과 投資財源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技術導入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摸索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對西方 交易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貿易政策의 변화는 1973年 第 1 次 石油波動의 영향으로 경제가 위축되었던 서방 선진국의 貿易市場 擴大 요구에 부응하여 北韓의 대서방 貿易規模를 일시적이나마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急速한 대서방 무역증대, 특히 輸出增大가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資本 및 設備導入은 결과적으로 대외 부채의 누증과 상환불능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惹起시킴으로써 최근까지도 대서방 교역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요컨대 1970~1979년 期間中에 북한의 年平均 輸出 및 輸入伸張率은 각각 13.6%, 11.4%로 韓國의 37.5%와 28.7%에 比較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水準이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合營法』(1984)의 채택을 계기로 북한은 무역증대를 위해 全

力하고 있으나 수출입은 規模面에서 이렇다 할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北韓貿易의 限界를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1990년도중 한국의 輸出入 實績은 수출 650억 2천만달러, 수입 698억 4천만달러로서 '86년이후 견지해오던 國際收支 黑字가 4년만에 赤字로 反轉되었다. 部門別로 이를 살펴보면 貿易收支의 경우 그동안의 價格競爭力 약화와 미국 등 선진제국의 경기둔화로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4.2%증가하였는데 그쳤으나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의 輸入負擔 증대와 設備投資의 호조를 反映한 資本財 輸入增加 등의 이유로 높은 增加勢를 보여 前年對比 13.6%의 增加率을 보였다.

이에 비해 북한의 年度中 輸出은 전년도 實績 19억 1천만불보다 다소 증가한 20억 2천만불, 輸入은 전년도 實績 28억 9천만불보다 오히려 감소된 26억 2천만불로서 貿易規模가 전년도 보다 4%감소된 46억 4천만불을 記錄하였다.

이는 '89년이후 東歐圈의 급격한 변화와 북한의 주요 經濟 依存國이었던 蘇聯의 經濟事情 惡化로 말미암아 硬貨需要의 급격한 증대, 原資材 및 設備導入의 不振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年度中 東歐圈 國家로부터의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原資材·設備導入을 기대하였으나 이들 국가의 對北 經濟協力에 대한 政策修正으로 말미암아 對北 商品供給이 현저히 減少하였을 뿐 아니라 貿易決濟方式도 청산결제방식에서 국제시장가격에 바탕을 둔 硬貨決濟方式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北韓은 이들 國家로부터 받아왔던 特惠的인 協力關係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입게된 손실을 補塡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對外信用度의 실추, 決濟硬貨의 부족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아뭏든 年度中 무역적자의 지속과 연체이자의 누적 등으로 '90년말 현재 北韓의 外債總額은 78억 6천만불로 추정되어 전년도보다 16%가 增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0년 현재 국민총생산에 대한 貿易依存度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輸出依存度 27.3%, 수입의존도 29.4%로서 貿易依存度는 56.7%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輸出依存度 8.7%, 輸入依存度 11.3%로 貿易依存度는 20.0%를 나타내 韓國과는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表 15〉 南北韓 輸出入 推移

(通關基準, 億美弗)

區分 / 年度	韓國			北韓		
	輸出額	輸入額	貿易額	輸出額	輸入額	貿易額
1970	8.4	19.8	28.2	3.7	4.4	8.1
1975	50.8	72.7	123.5	8.1	10.9	19.0
1980	175.0	222.9	397.9	14.4	17.4	31.8
1985	302.8	311.4	614.2	13.5	17.2	30.7
1986	347.1	315.8	662.9	14.9	21.1	36.0

區分 / 年度	韓國			北韓		
	輸出額	輸入額	貿易額	輸出額	輸入額	貿易額
1987	472.8	410.2	883.0	16.7	24.0	40.7
1988	607.0	518.1	1,125.1	19.9	31.6	51.5
1989	623.8	614.6	1,238.4	19.1	28.9	48.0
1990	650.2	698.4	1,348.6	20.2	26.2	46.4

資料：韓國은 關稅廳, 北韓은 統一院

나. 貿易構造

輸出商品의 構造를 살펴보면 한국은 본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이 착수되기 이전인 1961년까지만 하여도 1次 商品의 수출이 82%나 차지하였으며 工產品의 수출은 18%에 불과하였다. 그 후 공업화가 활발히 진척됨에 따라 工產品의 輸出은 급속도로 늘어나 1970년에는 總 輸出額 가운데 83.6%를 차지하게 되었고 1980년에는 92.3%를 점하여 명실공히 工業國家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이제는 附加價値가 높은 工產品의 수출에 注力하고 있다.

1990년 현재 輸出商品의 산업별 구성은 工產品이 95%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가 농수산물로 構成되어 있다. 그리고 輸出工產品의 대종은 電子·電氣製品, 纖維製品, 船舶, 自動車, 신발類, 鐵鋼製品 등이다.

북한의 輸出은 당초 철광석, 비철금속, 광물 등 1次 産品에 의존하였으나 1960년대 반제품 수출의 확대 과정을 거친 후 1970년 以後에는 完製品 輸出의 增大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출구조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사실은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중 鑛産物과 水産物을 비롯한 1次産物이 아직까지도 35~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蘇聯과 日本에 대한 북한의 輸出商品이 금속 및 철강제품과 각종 원광석, 마그네샤크링카, 석탄, 시멘트 등으로서 鑛物資源 및 1次 工産品이 대종을 이루고, 그 외에 農水産物, 纖維類가 일부였다는 事實을 보아도 알 수 있다.

輸入에 있어서는 南北韓 공히 賦存資源이 풍부하지 못함으로써 공업화에 필요한 原資材 및 에너지 자원의 輸入依存度가 매우 높은 것은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全般的인 輸入 構成比에 있어서는 經濟規模와 産業構造의 차이로 南北韓이 서로 對照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輸入商品은 1990년에 資本財 26.4%를 제외하고 수출용 또는 내수용 原資材와 燃料의 構成比率이 65%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경우에는 機械設備 등의 자본재와 그 외에 中間財, 燃料, 金屬製品 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地域別 貿易構造를 보면 韓國은 貿易規模의 擴大와 더불어 貿易市場의 多邊化 政策을 推進함으로써 오늘날에는 세계의 170여

개 국가들과 貿易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종래 美國과 日本에 편중되었던 市場構造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1988년 이후 韓國은 蘇聯, 中國과의 經濟交流 및 협력의 추진은 물론이거니와 헝가리, 폴란드, 유고 등 동구권 國家들과의 무역사무소 교환 개설이 최초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經濟交流 및 協力時代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1988년 7월 7일 盧泰愚 大統領의 對北韓 特別宣言을 계기로 南北韓間의 經濟交流 및 協力問題도 民族共同의 繁榮이라는 次元에서 그 方案을 모색, 남북한간의 交流·協力에 힘을 기울였다.

마침내 1989年度에는 남북한간의 交易이 實現되어 交易額이 1,872만불에 달하였으며, 1990年度에도 1,347만불을 기록함으로써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표16참조〉

〈表 16〉 南北韓 交易現況

通關基準

區 分	年度	件 數	商社數	品 目 數	金額(千$)
對北搬入	'89	66	55	55	18,655
	'90	78	60	60	12,278
對北搬出	'89	1	1	1	69
	'90	4	3	6	1,187

1990년도 北韓의 貿易規模는 전년도 보다 4% 감소된 46.4억불로 推計되었으며 輸出은 20.2억불, 輸入은 26.2억불로 6억불의 貿易赤字를 記錄하였다.

북한은 현재 약 80여개 국가와 交易關係를 가지고 있으나 交易比重이 蘇聯, 中國, 日本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들 3개국에 대한 貿易依存度는 70%를 상회하고 있는 實情이다.

〈表 17〉 北韓의 貿易 및 外債現況

區 分	單位	'90 年	'89 年
貿易總額	億弗	46.4	48.0
(輸出)	〃	(20.2)	(19.1)
(輸入)	〃	(26.2)	(28.9)
貿易收支	〃	△6.0	△9.8
外債總額	〃	78.6	67.8

V. 要約과 結論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경제는 韓國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그 격차는 시간과 더불어 계속 擴大되고 있다. 이른바 經濟成長의 『南高北低』現象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現象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경제 이념과 體制의 틀속에서 顯示的으로 나타난 結果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韓國이 시장과 자유경쟁이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自律的·多元的인 經濟秩序를 形成, 發展시켜 왔는데 반해 北韓은 中央集權的 계획과 통제라는 인위적·획일적인 操作에 의해 경제가 運營, 管理되어 온 것이 오늘날과 같은 生産力의 隔差를 빚어낸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보아도 쉽게 確認될 수 있다.

첫째, 개발초기 북한이 한국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工業化 條件下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이 북한을 크게 앞지르는 經濟的 成果를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이 市場에 대한 政府의 介入 정도를 줄이고 또 자율적으로 시장이 건전하게 발달함에 따라 계속 生産性이 향상되어 온데 반해 북한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고수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生産性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이 최근 低成長의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開放化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보이고 있는데, 이는 종래 고수하여왔던 自己完決的인 아우타르키 체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으로 의미한다는 점이다.

넷째, 政治·理念的 自家撞着에 빠져 북한이 적극적으로 표면화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物質的 誘因(Material Incentive)의 폭을 소폭적으로나마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生産力이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投資 및 消費支出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하나의 독점적인 供給經濟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한국과 북한의 投資 및 消費支出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남북한의 국내 投資率은 거의 비슷하지만 북한의 經濟規模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年間 投資의 絶對的 規模는 한국에 비해 북한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더욱이 북한은 投資價値와 그 우선 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이 黨과 政權機關에 의해 유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북한은 모호한 가치결정 기준에서 오는 심한 投資의 浪費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이 각종 市場情報를 통해 평가된 投資 收益率에 입각하여 투자가 합리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북한은 기형적인 供給經濟인 만큼 消費抑制가 직접적으로 일반

주민의 희생을 強要하고 있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北韓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過少消費의 強要에 따른 주민 불만의 累積現象을 政治·思想的 誘因(Moral Incentive)에만 의존, 解決하려고 주력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 더 懷疑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慢性化되어 버린 北韓의 經濟沈滯로 장래에 대한 주민의 기대심리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反比例하여 住民의 現實的 불만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은 所得水準에 비해 지나친 消費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物質的 豐饒 속에서 나타난 結果이긴 하지만 보다 건전한 消費形態가 要求되고 있다. 消費性向의 歪曲은 나아가 經濟 全般의 歪曲으로 擴大될 수 있는 것이다.

南北韓이 모두 扶養人口가 많은 반면 賦存된 資源은 貧弱한 實情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규모의 急伸長과 더불어 에너지 및 原資材의 需要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輸入依存度는 아직까지도 매우 높은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世界 經濟與件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經濟的 脆弱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韓國은 이와 같은 취약성의 개선을 위해 에너지 節約的인 經濟構造로의 轉換을 꾀하고 있으며, 輸出入市場을 多邊化함으로써 원자재의 安定的인 供給에 注力하고 있다. 또한 高級人力을 바탕으로 하여 에너지 및 原資材의 輸入依存度가 낮으면서 동시에 附

加價値가 높은 情報産業의 開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北韓의 경우는 韓國과는 달리 貿易依存度가 매우 낮은 경제이다. 北韓은 石炭을 비롯한 非金屬鑛物과 그 製品이 주종 수출품으로 이들은 선진기술 및 설비 導入에 필요한 主要 外貨獲得源이 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資本不足에 시달리고 있는 北韓에 있어서 충분한 物量은 아니지만 北韓經濟를 지탱해 나가는데 重要한 役割을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출상품들의 大部分은 北韓이 豐富하게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輸出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北韓도 역시 對內的으로 에너지가 절대 不足한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外貨獲得을 위해 도리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北韓은 住民生活의 犧牲을 강요하지 않을 수 없는 形便이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生産意慾이 떨어짐으로써 北韓經濟 全般이 沈滯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惡循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統一指向的인 民族經濟의 성장과 發展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남북한의 經濟交流와 協力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民族經濟의 發展速度가 북한지역 經濟의 低成長에 기인하여 늦어지고 있는 만큼, 北韓은 對內的으로 과감한 經濟改革을 추진하는 한편, 南北韓間의 경제교류·협력을 增大시키고 대외개방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1990年度 基準)

1991年 12月 14日 印 刷
1991年 12月 28日 發 行

發行處： 統一院 情報分析室
印刷所： 輝 文 印 刷 (株)